

『黃帝明堂經』 體系의 傳承과 流傳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金基郁·朴炫局

I 序 論

『黃帝內經』이 成書된 이후 針灸에 대한 전문적인 醫籍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와 師承관계가 있었다. 특히 皇甫謐이 魏·甘露(256~259) 연간에 저작한 『黃帝三部針灸甲乙經』(이하 『甲乙』이라 간칭함) 12卷은 『素問』、『九鍼』、『明堂孔穴針灸治要』(이하 『甲乙·明堂』이라 간칭함)을 참작하여 착간과 중복을 피하고 계통적으로 정리하여 오늘날까지 보전되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침구학적인 내용을 상세히 논한 醫經인 『黃帝內經』은 면면히 계승되어 流傳하였으나, 이보다 약간 늦게 成書된 것으로 추정되고(西漢末과 東漢 延平年間) 經絡의 流注와 腧穴을 나타낸 『黃帝明堂經』은 『黃帝明堂』、『黃帝內經明堂』、『內經明堂』、『明堂流注』、『明堂孔穴針灸治要』 등으로 명명된 다양한 傳本系統이 있었다.

그리고 楊上善의 『太素·卷十一·氣穴』에서 “『黃帝(明堂)』取人身體三百六十五穴……至于『扁鵲灸經』取穴名字即大有不同 近代『秦承祖明堂』、『曹子氏灸經』所承別本 處所及名亦皆有異……不可全言非也”라 注解하였고, 『外臺·卷19』 蘇敬의 「脚氣論」에서는 “謹按『明堂(經)』制:……又按秦承祖、華佗等取穴……『黃帝(明堂)』爲本 諸說并不可信”이라 하여 唐代에는 『扁鵲灸經』、『華佗針灸經』、『曹氏灸經』、『秦承祖明堂』 등이 있었으며 이는 『黃帝明堂經』과 학술적으로 유과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明堂體系에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傳本으로는 皇甫謐의 『甲乙』에 포함된 『明堂孔穴針灸治要』과 666년 전후에 저작된 楊上善의 『黃帝內經明堂類成』(이하 『類成』이라 간칭함)이 있는데, 『甲乙·明堂』에서는 四肢部の 穴을 12經으로 나누고 下에서 上으로 배열하였고 頭面軀幹 부위별로 穴을 分行시켰으며, 『明堂類成』에서는 腧穴을 모두 經에 따라 배열하였는데, 明堂을 기술한 역대 醫籍에서는 이를 典範으로 삼아 각기 經絡流注 및 腧穴 理論을 전개하였다.

唐·孫思邈의 『千金要方』(652) 卷29에는 「明堂三人圖」를 “五色作圖”하였고, 『千金翼方』(682) 권26 「取孔穴法篇」에는 12經의 表裏에 따라 經名、穴名을 구체적으로 배열하였고, 唐·王燾의 『外臺秘要』(752) 卷39 「明堂·序」에서는 “諸家皆以三人爲圖 今因十二經而畫圖人十二身也”라 하였다. 宋·王維一은 奉勅하여 銅으로 經穴模型을 주조하고 天聖 4년(1026년)에 『銅人腧穴針灸圖經』을 저술하였다. 宋 徽宗 政和7년(1117년)에 『聖濟總錄』 200권이 완성되었고 그 가운데 卷

191~194가 針灸經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如環無端하게 순환하는 經脈에 經穴을 배치시켜 經脈體系를 변혁시킴으로써 『甲乙·明堂』의 진면목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역대로 針灸理論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古代 針灸醫籍을 천착하여 『明堂孔穴針灸治要』의 전통적인 經旨를 계승하였는지를 탐색하여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黃帝明堂經』의 고찰

秦代 전후 및 漢魏 시기에 針灸專書는 종류와 수량적으로 커다란 발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다양한 견해와 師承 관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楊上善의 『太素』 注文에서 “『黃帝明堂』에서 인체에 365혈을 가려 뽑았고……『扁鵲灸經』에서는 혈에 대한 명칭이 크게 다르다. 근대 『秦承祖明堂』, 『曹子氏灸經』을 계승한 別本에서도 혈의 자리와 이름이 모두 다르다. 그러나 질병 치료의 효과도 적지 않으므로 바로 알고 헤아려 병을 좇아 쓰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¹⁾고 하였다. 또한 唐初 蘇敬의 『脚氣論』에서 取穴寸法을 언급할 때 “삼가 『明堂(經)』에서 제정한 것을 살펴보면……촌법은 환자의 中指 上節을 1촌으로 삼았다.……또한 진승조, 화타 등의 취혈법을 살펴보면 三指、四指를 표준으로 삼았다.三里를 취혈할 때 四指로 하였는데 손가락의 넓이가 6분이고 4×6은 24가 되어 단지 넓이가 단지 2촌4분이 되니 어찌 명확하게 취혈할 수 있겠는가? 『黃帝明堂』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다른 설은 믿을 수 없다”(『外臺』 卷19)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扁鵲灸經』, 『華佗針灸經』, 『曹氏灸經』, 『秦承祖明堂』 등은 모두 『黃帝明堂』과는 학술적으로 유파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전문 침구서는 대부분 실전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와 佚文을 고찰하면 이해할 수 있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黃帝明堂經』 전본으로는 三國時代 皇甫謐이 저작한 『甲乙經』에서 보존되어 전해온 『明堂孔穴針灸治要』가 있고, 隋唐 시기에 楊上善이 『黃帝明堂經』의 3卷本을 注釋하여 13卷으로 擴編하고 書名을 『黃帝內經明堂類成』으로 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甲乙』은 현존하는 針灸經穴 醫籍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甲乙』 권3에 『明堂孔穴針灸治要』의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요즈음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經脈循行體系와 腧穴起止順序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따라서 『黃帝明堂』의 原貌를 확보하기 위해 『黃帝明堂』의 經穴體系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甲乙·明堂』의 원본은 일찍이 失傳되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明堂』 경혈체계에 대하여 대부분 『黃帝內經明堂類成』을 표준으로 보고 있다. 楊上善의 『類成』은 『甲乙』에 있는 『黃帝明堂』의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따라서 이것은 『甲乙』에서 “腧穴과 經絡이 분리된 것”을 바로잡아 明

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卷十一·氣穴篇』 影印本 (光緒23年, 通隱堂刊), 中國中醫藥出版社影印本, 1994.

堂孔穴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발휘시킨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甲乙』과 『類成』은 경혈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결국 어느 것이 정통이고 어느 것이 “異說”²⁾인지는 깊이 분석하여 고찰해야 할 것이다.

1) 『黃帝明堂經』解題

『黃帝明堂經』은 『黃帝明堂』、『黃帝內經明堂』、『內經明堂』、『明堂流注』、『明堂孔穴針灸治要』 등³⁾이라 칭하며 『明堂經』 혹은 『明堂』이라 간칭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고대에 『黃帝明堂經』내용과는 다른 여러 針灸書도 “明堂經” 혹은 “明堂”이라 칭하였다. 예를 들면 陳延之의 『小品方』에서 인용한 『明堂』이나 『太平聖惠方』⁴⁾과 『針灸資生經』에서 인용한 『明堂經』은 『黃帝明堂經』이 아니므로 잘 구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唐代 名醫 楊玄操는 『黃帝明堂經』을 “黃帝正經”⁵⁾이라 칭하기도 하였고, 孫思邈은 “明堂正經” 혹은 “明堂本經”⁶⁾이라 칭하여 다른 『明堂經』과 구별하였다. 『素問』에 의하면 黃帝가 明堂에 앉아 雷公에게 陰陽、表裏、上下 등 “醫之道”를 가르쳤는데 후세에는 “醫之道”의 典籍을 “明堂”이라 하지 않고 腧穴을 논한 책에서만 대부분 “明堂”이라고 하였다. 『淮南子·精神訓』高誘注에서 “명당』은 천자가 정사를 펼치는 집이다……모두 12곳으로 천자가 한달에 한 곳에 기거하며, 초하룻날 조회를 받고 달력을 하사하고 정령을 반포하는 곳을 명당이라 한다”고 하여 하여 明堂에는 十二月에 응하는 十二宮이 있어 王이 한달에 하나의 室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명당을 월령 앞에 덧붙여 그 편을 명명하였다”⁷⁾. 『黃帝明堂經』에는 四肢에 十二經을 각각 소속시키고 각 經마다 五輸가 있어 下에서 上으로 차례로 유주하는 것과 “明堂”에 十二宮이 있고 제왕이 달마다 하나의 室에 차례로 거주하는 것과 부합한다. 腧穴의 典籍과 관련된 것을 『明堂流注』⁸⁾, 『明堂孔穴』(隋志), 『明堂孔穴針灸治要』 등이라 한 것은 “比類取象”하여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明堂”이라는 말이 “腧穴”의 대명사가 되었다. 腧穴圖도 이에 따라 『明堂圖』라 칭해지게 되었고 혹은 諸家の 이름을 붙여 『黃帝明堂』, 『秦承祖明堂』(『太素』楊上善注) 등이라 하였다.

2) 『黃帝明堂經』의 成書 年代

『黃帝明堂經』은 『漢書·藝文志』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魏末 皇甫謐 『甲乙經』의 초기 전본의 하나인 『甲乙·明堂』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고찰해 보면 이 책은 漢代에 저작된

2). 唐·王燾: 『外臺秘要』明堂序, 人民衛生出版社, 1955년 影印

3). 『舊唐書·經籍志』, 『新唐書·藝文志』, 『素問·通評虛實論』王冰注文, 『太素』卷十一 楊上善注文, 『針灸甲乙經』自序

4). 『太平聖惠方』卷第一百 冒頭에는 “明堂序”만 나타나고 명당에 따른 구체적인 穴은 나타나지 않는다.

5). 『醫心方』卷二에서 轉引. 人民衛生出版社 影印, 1955년, 57쪽.

6). 『備急千金要方』, 人民衛生出版社 影印, 1982년, 508, 518쪽

7). 『蔡中郎集』“明堂月令論”, 四部備要本, 卷十

8). 周楣聲: 『針灸穴名釋義』, 安徽中醫學院教務處 鉛印, 1983년, 5쪽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甲乙·明堂』의 내용으로 볼 때 오행학설의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데 十二經의 五輸穴을 모두 오행과 배속시킨 것은 漢代의 학술적인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腧穴의 1/3에 別名이 있고 몇몇 同名穴이 있으며 술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月水”를 “月事”, “經水”라 하였고 “癰癰”을 또한 “癰適”이라 하는 등 이 책에서는 다른 方言을 사용하는 지역의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편성하였다. 이러한 것은 先秦 시기에는 완성될 수 없으며 秦代에도 완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秦代에 문자를 통일하였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필요하였으며 秦이 통치한 시기가 15년에 불과하다. 漢 武帝때에 처음으로 정부가 습을 내려 전국에 산재한 도서를 徵集하였고 宮內에는 도서를 수장하기 위한 관사를 건립하였다. 따라서 다른 지방에서 수집된 많은 문헌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甲乙·明堂』에 “期門”穴이 있는데 周楣聲은 期門이 명명된 유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期門”은 漢代 武官 이름으로 漢 武帝 建元3年(기원전 138년)에 설치되어 병사들의 출입과 호위를 관장하였으며 平帝 元始元年(기원 1년)에 “虎賁郎”으로 이름이 바뀌었다(『漢書』 “百官公卿表” 및 “東方朔傳”에 나타남). 肝은 將軍之官이기 때문에 “期門”으로 肝의 募穴을 명명하였다. 이를 근거로 『黃帝明堂經』은 기원전 138년 이후에 만들어졌음이 틀림 없다(周는 이것으로 『內經』의 成書年代를 추측하였다. 오늘날 『素問』, 『靈樞』에는 “期門”이란 명칭은 없다). 넷째, 漢 殤帝의 이름을 避諱하지 아니하였다. 漢 殤帝의 이름은 隆인데 그 때 사람들은 지명인 “隆慮”를 “林慮”로 바꾸었고 병명인 “癰”도 “淋”⁹⁾으로 개작하였으나 『甲乙·明堂』에서는 모두 “癰”으로 되어 있다. 이를 근거하면 이 책이 만들어진 연대의 하한선은 漢 殤帝 延平年(기원후 106년)이 된다. 이상으로 『黃帝明堂經』은 대체적으로 西漢末과 東漢 延平年 사이에 성서된 것으로 보여진다.

3) 『黃帝明堂經』의 傳本

『黃帝明堂經』 초기 전본의 하나인 『甲乙·明堂』은 『甲乙』에 거의 실려 보존되어 왔다. 근대 일본 仁和寺에서 『黃帝明堂經』의 다른 전본인 楊上善 『黃帝內經明堂』¹⁰⁾의 第一卷 및 서문이 발견되었다. 이 두 傳本의 원류와 특징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甲乙經』 傳本

현행본의 『甲乙』 자서에 의하면 皇甫謐이 魏·甘露(256~259) 연간에 만들었다고 하였다. 최초로 이 책을 기재한 目錄은 梁·阮孝緒 『七錄』(梁·普通4년, AD 52년)이며 최초로 『甲乙』을 인용한 의서는 5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小品方』¹¹⁾이다.

『隋書·經籍志』에 기록된 『黃帝甲乙經十卷』條 아래에는 作者를 명시하지 않았고, 『舊唐書·經籍志』의 注에서 “皇甫謐撰”이라 하였다. 이에 앞서 唐代 초기 楊上善、楊玄操가 『甲乙經』의

9). 李今庸: 中醫古代病症名詞考, 『湖北中醫雜誌』, (2) 1984: 1

10). 仁和寺本 黃帝內經明堂(일명 黃帝內經明堂類成이라고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類成』이라 간칭한다), 東洋醫學善本叢書 第三冊) 影印本: 東洋醫學硏究會, 오리온출판사, 1981년.

11). 陳延之: 小品方, 高文鑄 輯校注釋,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5.

편자가 皇甫謐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으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晉書·皇甫謐傳』에서 황보밀이 생전에 저작한 것을 열거하였는데 당시에 큰 영향을 끼친 『甲乙』은 언급하지 않았다. 唐代에 皇甫謐과 『甲乙』을 서로 연계시킨 것은 이 책의 서문에 나타난 題名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傳世本인 『甲乙』 서문과 皇甫謐의 『帝王世紀』에 나타난 문자를 서로 대조하면 양자는 서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甲乙』 서문이 과연 皇甫謐의 손으로 씌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¹²⁾ 그러나 醫史學者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근거하여 『甲乙』의 편자를 皇甫謐이라고 해둔다.

『甲乙』은 『素問』, 『針經』, 『明堂孔穴針灸治要』 세 醫籍을 匯集하여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 1-1과 같으며, 권3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黃帝、岐伯의 問答은 『素問·氣穴論』에서 나타나고 나머지는 『明堂』의 佚文이다.¹³⁾

表 9. 『針灸甲乙經』의 주요 내용¹⁴⁾

『甲乙經』 卷數	內 容
1~2	모두 『素問』 및 『針經』(『靈樞』)의 원문
3	모두 『明堂』의 원문
4	모두 『素問』 및 『針經』의 원문
5	“針灸禁忌” 아래 부분의 『明堂』 원문을 제외하면 모두 『素問』 및 『針經』의 원문
6	『素問』 및 『針經』의 原文
7~12	每卷 각 篇의 앞부분에 논한 病機 부분은 모두 『素問』, 『針經』의 原文 每卷 각 篇의 뒷부분에 논한 구체적인 孔穴主治 부분은 모두 『明堂』의 原文

현행본인 『甲乙』과 현존하는 『素問』, 『靈樞』의 모든 문자를 字, 句에 따라 대조 고찰한 결과 『甲乙』은 상술한 세 책의 全文을 다시 새롭게 분류 정리한 후에 合編한 本임을 증명되었다¹⁵⁾. 현행하는 醫統本인 『甲乙』 正文은 107,211字¹⁶⁾이고 그 중에 24,371字는 현존하는 『素問』, 『靈樞』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後人の 注本을 제외하면 이른바 『甲乙·明堂』의 문자이다. 따라서 『甲乙』에 기록된 『甲乙·明堂』은 『黃帝明堂經』의 초기 文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皇甫謐이 『甲乙』을 편집할 때 『素問』, 『針經』, 『明堂』에서 서로 중복되는 문자는 삭제하였고 또한 현존하는 관련 자료로 고찰하면 『甲乙』이 唐代 초기까지 전해지는 동안 이미 몇몇 脫誤된 곳이 있었고 宋代에 이르러서는 “탈락된 簡編이 너무 많다”¹⁷⁾고 하였다. 현행본인 『甲乙』 중에서도 脫誤된 것이 많은데 현행본에서 主治, 病症의 條文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무려 19개의 腧穴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문제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현행본 『甲乙』에는 甲穴이 乙穴

12). 黃龍祥: 針灸名著集成, 附錄 『針灸甲乙經』 考略, p. 143.

13). 黃龍祥 主編: 針灸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北京, 1997. p.35.

14).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296.

15). 馬繼興: 『十二種重點中醫古籍的現存版本及其源流』, 中醫研究院醫史文獻, 1984, p.24.

16). 筱原孝市를 參照: 甲乙經總論, 『東洋醫學善本叢書』 第八冊, 日本, 東洋醫學研究會, 1981. p.459.

17). 林億 등: 『新校正黃帝針灸甲乙經』 序.

로 잘못되었거나, 하나의 혈이 두 개의 혈로 혹은 두 개의 혈이 하나의 혈로 잘못되어 있거나, 前穴의 穴名이 탈락하고 그 主症이 後穴의 主症에 혼입된 것이 모두 42條 73穴에 달한다.

『甲乙』은 모두 12권, 128편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두 분류로 되어 있는데 권1에서 권6까지는 의학의 기초 이론과 침구학의 기초 이론이고, 권7에서 권12까지는 임상 치료 부분으로 각종 질병의 病因、病機、症狀、俞穴主治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1은 인체의 생리 기능을 논하였고, 권2는 12經脈、奇經八脈、12經標本、經脈根結、經筋 등의 순행 노선과 발병을 논하였고, 권3은 俞穴主治 부분으로 모두 349혈을 정리하고 頭部、面部、腹部、四肢 등 35부위로 구분하여 각 穴의 부위、刺針의 깊이、灸의 壯數를 기술하였고, 卷4에서는 진단법을 논하였고, 권5는 針道로 九鍼의 형상과 작용, 자침의 수법과 보사의 방법, 禁穴과 禁忌를 상세히 논하였고, 권6에서는 陰陽五行說에 따라 생리、병리를 논하였고, 권7에서 권12는 內科、外科、婦人科、小兒科 등 임상치료 부분을 논하였다.

(2) 楊上善 注本の 殘卷

현재 日本 仁和寺에 소장된 楊上善의 『類成』 卷子本은 모두 2軸으로 序文과 卷一 肺經 부분만 겨우 보존되어 있다. 하나는 永仁 4년(1296년) 丹波長高의 寫本이고, 다른 하나는 永德 3년(1383년)의 寫本으로 抄寫한 사람은 不詳하다. 이 두 종의 寫本은 抄寫된 年號를 근거로 “永仁本”、“永德本”으로 칭하며 日本東洋醫學研究會에서 影印 출판하였다. 『黃帝內經明堂』 序文, 卷一 부분 및 日本古醫書에서 이 책의 佚失된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고찰하면 이 傳本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① 본서는 楊上善이 고대 三卷本인 『黃帝明堂經』을 근거로 개편 정리하여 만들었다. 여기에 있는 365혈은 모두 經脈에 따라 배열하였고, 十二經穴을 각각 한 권으로 하고, 奇經八脈穴을 한 권으로 만들어 모두 13권으로 되어 있다.

② 每卷의 첫머리에 그 經이 소속된 臟이나 腑의 解剖、生理、病理 및 그 經脈의 循行, 소속된 經穴 등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이 부분의 문자 아래에는 注文이 없고, 楊上善이 『內經』、『難經』 등을 근거하여 새롭게 증가시킨 것으로 『黃帝明堂經』의 原文은 결코 아니다.

③ 楊上善 注文의 최대 특징은 『黃帝明堂經』에 있는 349혈의 穴名意義를 訓釋한 것이다. 穴名을 해석한 유래는 오래되어 楊氏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訓釋한 것은 楊上善이 첫 번째이다.

이 책이 발견됨으로써 『黃帝明堂經』의 구조、체례、전본의 원류를 고찰하는데 매우 진귀한 자료를 얻게 되었다.

4) 『黃帝明堂經』을 인용한 醫籍

『黃帝明堂經』은 隋唐 시기에 매우 광범하게 유전되었고 다른 傳本도 유전하였다(『甲乙·明堂』 注文에 의거). 또한 정부의 勅命으로 修定한 注釋本의 출현을 통하여 이것의 전파가 더욱

촉진되었다. 이 시기에 외국과 의학적인 교류로 통하여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방대한 類書나 方書에 『黃帝明堂經』의 내용이 인용되거나 초록되었다. 현존하는 醫書에서 『黃帝明堂經』의 佚文이 비교적 많이 보존된 것으로는 『外臺秘要』(이하 『外臺』라 간칭함), 『千金要方』(이하 『千金』이라 간칭함), 『千金翼方』(이하 『翼方』이라 간칭함) 및 일본 古醫書 『醫心方』을 들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각각 개술한다.

(1) 『甲乙·明堂』을 인용한 醫書

① 『外臺秘要』

『外臺』 권39는 “明堂灸法”을 專論하였고, 그 중에 “十二身流注五臟六腑明堂”(“明堂”이라 약칭함) 부분은 腧穴과 그 주치, 병증 등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腧穴을 모두 五臟六腑十二人에 나누어 소속시켰고, 每臟(腑)人 앞에 모두 “甲乙經” 세 글자를 붙였으며 五輸穴의 流注 뒤에 “出第三卷中 甄權、千金、楊操(즉 楊玄操, 宋人이 避諱하여 고침)同”이라 하여 小字注文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膀胱人”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11人에서 마지막 穴 아래 마찬가지로 “甄權、千金、楊操同”이라 注하였다.

『外臺』에서 甄權 등에서 인용하여 주를 달아 밝힌 것을 제외한 내용과 『甲乙』을 대조하면 『甲乙』에서 범한 착오가 『外臺』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甲乙』에서 “天谿”, “箕門”을 “太谿”, “期門”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 『外臺』에서도 답습하였다. 『甲乙』에서 여러 脫文이 『外臺』에서도 보충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난다. 『甲乙』 孔最穴에서 脫文된 主治가 마찬가지로 『外臺』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外臺』에서 『甲乙』의 여러 注文을 인용하여 수록하였다. 현행하는 醫統本인 『甲乙』에 실린 率谷, 本神, 五輸穴 등의 注文이 『外臺』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條에서 나타난다.

王燾가 『外臺』 明堂部分을 편집할 때 근거로 삼은 『甲乙』은 唐代 傳本이기 때문에 옛 原本을 근거하여 접근하면 현행본인 『甲乙』의 탈오된 곳을 補正할 수 있어 『黃帝明堂經』을 다시 편집하는데 중요한 참고가치가 있다. 그러나 王燾가 『外臺』 明堂部分을 편집할 때 몇몇 잘못을 범한 곳이 있다.

첫째, 『素問』, 『靈樞』를 잘못 초록하였다. 『甲乙』은 『素問』, 『靈樞』, 『明堂』을 合編한 本이며 『明堂』을 편집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甲乙·明堂』의 글인지를 반드시 먼저 밝혀야 한다. 이는 王燾의 입장에서 당시에 유전된 『黃帝明堂經』을 취하여 그것과 대조하였다면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王은 『甲乙』에서 『素問』, 『靈樞』에 속하는 20여조를 『外臺』 明堂部分에 편집하여 넣었다. 예를 들면 『外臺』 “天容”穴의 主症에 “陽氣 大逆 上滿于胸中 憤膈肩息 大氣逆上 喘噎坐伏 病咽噎不得息”이 있는데 이 글은 『甲乙』 권9 제3에 나타나며 原文은 “曰: 『九卷』言振埃 刺外經而去陽病 願卒聞之. 曰: 陽氣大逆 上滿于胸中 憤膈肩息 大氣逆上 喘噎坐伏 病咽噎不得息 取之天容”이라 되어 있고, 또한 明抄本에서는 이 句의 첫머리에 “黃帝問曰”, “岐伯對曰”로 되어 있어 『甲乙』에서 초록한 것이 아니고 실체는 『靈樞·刺節眞邪』에서 초록하였다. 『醫心方』, 『千金』의 “天容”穴 아래에는 이러한 병증은 없다. 王燾는 이 문장이 『明堂』의 것으로 잘못 알아 “天容”穴에 초록하였다.

둘째, 腧穴主治 조문을 잘못 귀속시켰다. 『甲乙』에서 “熱痛煩心 足寒清 多汗 先取然谷 後取太谿 大指間動脈 皆先補之”라 하였는데 『甲乙』 取穴體例에 따르면 이 條의 주증은 “然谷”이 所主한다. 『醫心方』에서도 “然谷”에 歸入시켰다. 그러나 王燾는 전혀 관계가 없는 “照海”穴에 歸入시켰다. 이는 古書에서 빈틈없이 글씨를 이어 쓰기 때문에 “然谷”과 “照海”의 주증이 서로 연결되어 王氏가 초록할 때 잘 알지 못하고 “照海”穴에 삽입시켰기 때문이다. 그가 “庫房”, “天容”, “五處”의 主症을 “屋翳”, “浮白”, “瘡門”穴에 잘못 삽입시켰다.

셋째, 腧穴의 주증을 완전하게 輯錄하지 못하였다. 『甲乙』에 “腸中常鳴 時上沖心 灸臍中”이라는 조가 있는데 『醫心方』, 『千金』에는 같지만 『外臺』에서는 “臍中”穴 아래 이 조를 수록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것이 모두 13조에 달한다.

넷째, 同名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 『甲乙』에서 同名穴에 대해 판단을 잘못하여 그 유래가 오래 되었다. 王燾도 역시 그 잘못을 면치 못하였는데 足部の “窟陰”穴의 主症을 頭部の “窟陰”穴에 잘못 귀입시켰다.

이상으로 上述한 『外臺』 明堂 부분에서 범한 이러한 착오가 그 일부분이 『銅人腧穴針灸圖經』을 거쳐 答습되었고 宋 이후의 鍼灸학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고 오늘날의 여러 鍼灸서에도 그 잘못을 여전히 答습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外臺』 明堂에 잘못된 곳이 많은 것은 『黃帝明堂經』의 藍本을 편집하여 복구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기타 醫書

『外臺』에서 『甲乙·明堂』本을 비교적 완전하게 편집 초록한 것을 제외하면 孫思邈의 『千金』, 林億 등의 新校正 『素問』, 『千金』 注文 및 『聖濟總錄』에서 『甲乙·明堂』의 내용을 비교적 많이 인용하였다. 그 중에 『千金』, 『聖濟總錄』에서는 『外臺』 처럼 『甲乙·明堂』을 완전하게 편집하여 초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原書의 원형에 따라 條文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甲乙·明堂』의 부분적인 본래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千金』 卷六은 現행본 『甲乙』 권12 “足太陽陽明手少陽脈動發目疾第四”篇에서 腧穴主治病症의 全文을 인용하였다. 卷30 “婦人病第八”은 『甲乙』 “婦人雜病”에서 대부분의 腧穴主治 내용을 引錄하였다. 권12, 권13, 권30은 각각 『甲乙』 권11 제7, 권9 제2, 권12 제 11편에서 腧穴主治 조문의 대부분을 인용하였다. 이 이외에 기타 卷에서도 산재한 『甲乙』 腧穴主治의 여러 조문을 인용하였다.

『聖濟總錄』 권192에서 권194에 이르기까지 인용한 『甲乙』 腧穴主治 조문은 더욱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렵다. 『聖濟總錄』에서 『甲乙』을 인용한 것 중에는 林億 등의 校語가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宋臣이 교정한 北宋 刊本을 통하여 초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책에서 인용한 『甲乙·明堂』 문자와 現행본인 『甲乙』을 對勘하면 現행본에서 脫誤된 것을 校正하여 補錄할 수 있는 곳이 많다. 『外臺』 권39와 『千金』에서 인용한 『甲乙·明堂』 문자를 대조하면 양자가 매우 接近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王燾가 『甲乙』 원문을 직접 인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2) 楊上善 注本을 인용한 醫書

① 醫心方

『醫心方』은 針博士 丹波康賴가 永觀2년(984)에 編著하였으며 권2 “孔穴主治法第一”에서 『黃帝明堂經』을 摘錄하였다. 全篇을 통하여 모두 660개의 穴을 수록하였고 그 중에 “『明堂經』穴은 649개”¹⁸⁾이라고 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649개의 『明堂經』穴에서 30條의 注文을 발견할 수 있어 『醫心方』에서 초록한 『明堂經』은 일종의 注釋本임을 알 수 있다. 唐代에 注한 『黃帝明堂經』에는 楊上善, 楊玄操가 있었는데 『醫心方』은 어느 것에서 초록하였을까?

楊上善은 『類成』을 注한 것 외에 『黃帝內經太素』도 注하였다. 이 두 책은 相輔相成하며 『類成』의 注文이 『太素』에 대량으로 인용되었고, 마찬가지로 『太素』의 注釋도 『類成』에 많이 인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같은 문제에 대한 注解가 같거나 비슷한 점이 많다. 『醫心方』에 초록된 『明堂經』 注文과 楊上善의 『類成』, 『太素』 注文을 대조해 보면, 『醫心方』 권2 腧穴部位 및 刺灸法의 내용은 編者의 개편이나 增刪이 없이 全文을 楊上善 注本에서 직접 抄錄하였다. 나머지 부분도 상응하게 개편하거나 刪節하였다. 따라서 『醫心方』의 “孔穴主治法”은 楊上善의 『類成』 注本에서 초록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黃帝明堂經』을 이해하는데 『醫心方』 권2가 진귀한 참고자료가 됨을 알 수 있다.

② 기타 醫書

상술한 『醫心方』 이외에 『太素』 및 일본의 몇몇 古書에서도 楊上善 『黃帝內經太素』의 부분적인 佚文이 보존되어 있다. 그 중에 『太素』 권5, 8, 9, 10, 11, 13, 14, 22, 25, 26, 30 등의 楊上善 注文에 『明堂經』 佚文 76조가 인용되어 있다. 일본 正歷 2년(991) 具平親王의 『弘決外典抄』에서 『類成』을 인용하였고¹⁹⁾, 永仁 元年(1293) 惟宗時俊의 『醫家千字文』에서 『類成』을 17조 인용하였는데 그 중에 正文 12조, 注文 5조 등이 있다. 이러한 佚文은 楊上善의 『類成』을 고찰, 연구하는데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다.

(3) 기타 傳本을 인용한 醫書

隋唐 시기에 이미 여러 종의 『黃帝明堂經』의 傳本이 유행하였는데 『黃帝內經明堂』 楊上善 注文的 여러 곳에서 “有本”、“或本”이라 하여 異文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楊上善, 楊玄操 두 사람의 注釋本도 출현하였으며 또한 孫思邈의 『翼方』 제 26권에서 甄權이 “貞觀 연간에 궁으로 들어가 少府가 되고 임금의 명령을 받아 『明堂』을 수찬하게 되었는데 承條郎인 司馬德逸, 太醫令인 謝季卿, 太常丞인 甄立言 등과 함께 『明堂』을 교정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唐 太宗도 일찍이 『明堂經』을 修正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孫思邈의 『千金』 권29, 『翼方』 권26에서 “針灸孔穴은 곧 甄權의 『明堂圖』에 의해 확정되었다”고 하였다. 이 두 卷에서는 주로 腧穴의 부위를 기술하였는데 대조를 하면 『甲乙』, 『外臺』, 『醫心方』에서 기록된 것과 대부분 같지만 단지 腧穴의 排列順序가 다른 점이 있어 甄權의 『明堂圖』가 실제로 『黃帝明堂經』의 腧穴圖譜 및 文字로 설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이외에 『千金』 권30에서도 腧穴主治를 기록한

18). 丹波康賴: 『醫心方』,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年, 卷二 38쪽.

19). 筱原孝市: 黃帝內經明堂總論, 『東洋醫學善本叢書』, 日本, 東洋醫學研究會, 1981年, 第八冊 p.164.

내용이 있다. 孫氏는 이를 “고금 명의들의 『明堂』을 수집”하여 편성한 것으로 『黃帝明堂經』이 전적으로 하나의 醫家에서 나온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조해 보면 『千金』 권30에 있는 41條의 主症은 『甲乙』이나 기타 『黃帝明堂經』 傳本에서 초록한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이 41조를 고찰하면 대부분 『曹氏灸方』、陳延之 『小品方』、秦承祖、甄權에서 나왔다. 현행하는 『千金』 卷三十에는 이러한 것들과 “明堂正經”에서 초록한 것이 어떤 표식도 없이 뒤섞겨 식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宋人의 교정을 거치지 않은 『新雕孫真人千金方』에는 이러한 것들과 “明堂正經”의 문자가 대부분 구별되어 쉽게 식별된다. 上述한 41條의 主症 이외에 『千金』 卷三十에는 腧穴主症이 모두 『甲乙』 및 기타 『黃帝明堂經』 傳本에서 초록하였다.

5) 『黃帝明堂經』 傳本の 體例

『黃帝明堂經』에서 『甲乙·明堂』과 楊上善 注本인 『類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體例의 측면에서 腧穴의 배열방식과 腧穴 主症 형식에 차이가 있다.

(1) 腧穴의 배열 방식

『甲乙·明堂』의 腧穴排列은 四肢에서 穴을 經으로 나누었고, 頭面軀幹 부위에는 穴을 分行시켰으며 또한 四肢部の 十二經穴은 下에서 上으로 모두 배열하였다. 楊上善의 『類成』에서는 腧穴을 모두 經에 따라 排列하였는데, 卷一 肺經의 流注 방향은 『靈樞·經脈』의 流注 방향과 같다. 그러나 楊上善은 『類成』에서 원래 있었던 十二經脈에 따른 五輸穴의 流注는 그대로 남겨 두었다. 肺經을 예로 들면 “肺出少商……流于魚際……注于太淵……行于經渠……入于尺澤”으로 기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肺經의 流注 방향을 胸에서 手로 향하는 『靈樞·經脈』에 의거하였으나 五輸穴은 오히려 下에서 上으로 流注하는 『靈樞·本輸』의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배열 방법은 양상선이 새롭게 편집한 것이 틀림 없으며 『黃帝內經明堂』 原書(3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上述한 두 종류의 배열 방법에서 『甲乙·明堂』이 『黃帝明堂經』 옛 모습에 더욱 접근해 있다.

『甲乙』 권3에는 十二經脈, 十五絡脈, 奇經八脈 등의 經名과 穴名, 穴位, 穴性 등이 배열되어 있다. 그 배열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手太陰, 手厥陰, 手少陰에서 向心으로 순행하는 『靈樞·邪客』의 手太陰, 手心主 脈氣를 처음으로 인용하여 “少陰無俞”인 도리를 해석하였다. 그리고 「本輸」 十一脈에 대하여 手少陰의 五俞穴를 증보하여 완전한 向心性 經脈系統을 완성시켰다.

2. 手陽明, 手太陰, 手少陽에는 「本輸」에서 나타나는 “大腸上合手陽明”、“三焦上合手少陽”、“小腸上合手太陽” 등의 구절을 처음으로 인용하고 向心性으로 出入하는 「本輸」의 순서에 따라 五輸穴을 배열하였다.

3. 足陽明의 巨虛下廉、巨虛下廉穴에서 “大腸、小腸皆屬於胃”하는 「本輸」를 인용하였다.

4. 足太陽의 委陽穴 아래에 委陽을 “三焦下俞”、“太陽之別也”라 하여 「本輸」의 經文을 인용하였다. 「本輸」의 委陽 원문인 “太陽之別也……并太陽之正”에 따르면 「本輸」에는 하나의 經에 正과 別이 이미 있었고 正別이 서로 병합하여 하나의 經으로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

本輸」에서 五輸穴을 언급한 뒤에 頭面軀干으로 상행하는 여러 “次脈”과 「經別」에서 “之正”, “別入”하는 것에 대한 변천된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甲乙』 권2에서는 穴이 나타나지 않은 「經脈」의 원문이 기록되어 있고 권3은 모두 向心으로 순행하는 「本輸」의 正, 別 경혈을 배열하였다. 따라서 『明堂』의 경락체계는 모두 向心性으로 순행하는 「本輸」의 正經임을 말해 주고 있다.

明代의 『針灸聚英』에서는 “『明堂』, 『針灸』, 『銅人』 『千金翼』 등의 醫籍은……특히 경락의 起止에 次序가 없다”²⁰⁾고 하였다. 근대 학자도 『銅人』 이전에는 經穴排列이 “錯”, “亂”하였고²¹⁾ 『甲乙』은 “腧穴과 經絡이 分離”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甲乙』 권3은 『明堂』의 정통으로 經絡 起止에 차서가 있으며 錯, 亂, 分離된 폐단은 결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腧穴主治의 형식

상술한 두 種의 傳本은 腧穴 主治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編寫 체례는 완전히 같다. 모두 “穴名、別名、部位、歸經、刺灸法”의 형식으로 編寫하였고 다른 점은 腧穴主治의 編寫形式이다. 楊上善의 注本에서는 腧穴의 모든 主治를 상응하는 腧穴의 “刺灸法” 아래에 집중시켜 두었으며 그 기본적인 격식은 (某穴)主某病으로 되어 있다. 『甲乙·明堂』에서는 대부분의 腧穴主治病을 상응하는 穴인 “刺灸法”項 아래 두지 않고 종류 따라 條로 만들어 각 篇에 배속시켰으며 기본적인 격식은 “某病 某穴主之”로 되어 있다.

(3) 『甲乙』 卷三의 12經 舍意

『甲乙』 권3 제 24에서 제 35까지 12經에 따른 경혈을 배열하였는데 각 經의 표제를 “手太陰及臂凡十八穴”, “足太陰及股凡二十二穴”……등으로 붙였다. 手足陰陽은 「本輸」 오수혈이고 及臂、及股는 오수혈에서 別出한 경혈을 배열하였다. 이는 「經別」의 원문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아무런 注解도 없다. 따라서 여기의 經穴配列法은 「經別」의 “正”, “別”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手太陰及臂”에서 처음에 「九鍼十二原」의 “五臟五俞……六腑六俞……經脈十二 絡脈十五……所出爲井……所入爲合……非此六者皆謂之間”을 인용하고, “所出, 所入”하는 「本輸」의 경혈을 正經으로 삼고 “及臂”의 天府, 俠白을 “別脈”으로 삼았다. 俠白穴을 여기에서는 “手太陰之別”이라 注하였고, 『針灸甲乙經校釋』의 注釋에서는 『明堂類成』의 楊上善注를 인용하여 “別者有正別之別 卽別經也”²²⁾라 하였다. 天府穴에 대하여 張景岳은 「經別」의 “手太陰之正 別入淵腋”을 “手太陰之正 其內行者 自天府別入淵腋”²³⁾이라 주해하였다. 두 사람은 “及臂”의 2穴을 설명하면서 陽明은 俠白, 少陽은 天府라 하였다. 이는 手太陰 正經이 尺澤에서 合入한 후 따로 上行하는 “別脈”이 “入走肺(中府)……上出缺盆(雲門)”하는데 즉 「本輸」에 「經別」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邪客」, 「根結」에서와 같은 向心性 경맥의 手太陰肺經이다. 또한 “手陽明及臂”에 있는 “及臂”의 五里、臂臑穴에서 五리에 있는 “禁不可刺” 注語와 「本輸」의 “陰

20). 高武: 『針灸聚英』 凡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5.

21). 吳剛: 關於十四經穴配列的討論, (全國第二屆鍼灸學術會議論文), 1981년

22). 『針灸甲乙經校釋』 上冊: 山東中醫學院 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9. p.426.

23). 張介賓: 『類經』 七卷 十二經離合, 文淵閣四庫全書本.

天動脈在五里 五臟之禁也”는 같다. 그러므로 『甲乙』의 經穴配列法으로 볼때 十二經은 모두 「本輸」를 正經으로 삼았고 “及臂”, “及股”의 배열은 모두 「經脈」의 別脈을 의미하고 있다.

6) 『黃帝明堂經』과 『黃帝內經』

침구가 독립된 專科로 되기 이전에는 침구 치료에 관한 내용의 대부분은 “醫經”、“經方”類의 의서에서 散見되며 『黃帝明堂經』은 東漢 이전의 의서에서 침구의 내용을 匯集하여 편성하였다. 애석하게도 『漢書·藝文志』에 기재된 “醫經” 七家, “經方” 十一家 중에서 오늘날에 전해지는 것은 단지 『黃帝內經』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黃帝明堂經』과 『黃帝內經』의 관계에 대하여 초보적으로 고찰할 수밖에 없다. 일찍이 皇甫謐은 『素問』, 『針經』(오늘날 『靈樞』), 『明堂』은 黃帝와 岐伯의 遺事로 三部를 함께 모았으나 중복되는 글이 많다고 하였다. 楊上善은 “『太素』에서는 그 주요한 뜻을 논하였고, 『明堂』은 그 형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天이 一이고 地가 二가 되는 이치와 같이 그 오묘한 현상을 마야흐로 전개하였다”²⁴⁾고 하였다. 『黃帝明堂經』과 『黃帝內經』과의 관계를 한층 깊게 밝히기 위하여 『素問』, 『靈樞』에서 침구내용과 『黃帝明堂經』 佚文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逐條逐字로 대조하여 표1-1에서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렇다면 『內經』의 침구에 대한 자료를 채취한 『黃帝明堂經』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

『素問』, 『靈樞』에는 어떠한 병증에 대하여 대부분 某經脈을 치료하였으나 『黃帝明堂經』에서는 대부분 그 經脈의 구체적인 腧穴을 택하였다. 예를 들면 『素問』에서 “瘡 不渴 間日而作 刺足太陽”이라 하였고 『明堂』에서는 “瘡 不渴 間日作 崑崙主之”라 하였다. 이 이외에 『內經』에서는 經脈를 위주로 症을 나타내는데 대하여 『明堂』에서는 일부분은 經穴로 개작하고 일부분은 經脈으로 하였다. 『素問』에서 “肺瘡者 令人心寒 寒甚熱 熱間善驚如有所見者 刺手太陰, 陽明”이라 하였고, 楊上善의 『明堂』 殘卷에는 “列缺主瘡 寒甚熱 痲驚而有見者 并取陽明絡”이라 하여 『素問』의 “手太陰”을 『明堂』에서는 “列缺”로 고쳤고, 『素問』의 “陽明”을 『明堂』에서는 여전히 “陽明絡”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明堂』에서 이러한 主病形式은 침구치료에서 取穴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가 점차 고정되어 갔고 최후에는 완전히 고정되는 세 단계를 반영하였다. 특히 『內經』에서 經脈이 所主하는 病症은 『明堂』에서는 대부분 肘膝 이하의 四肢部에 상응하는 經穴이 주관하는 것으로 택하였다. 또한 「經脈」의 十二經脈에 따른 病候도 『明堂經』 肘膝 아래 四肢部에서 상응하는 經穴 主症에 대부분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甲乙』의 腧穴排列이 四肢 肘膝 이하를 왜 經으로 나누었으며 頭面軀幹部로 分行시켰는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7) 『黃帝明堂經』의 업적

『黃帝明堂經』의 학문적인 업적은 주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腧穴의 總數에서 『黃帝明堂經』에서는 모두 349혈을 기재하였고 그 중에 163개의 혈명(25개 別

24). 楊上善 『黃帝內經明堂』序, 永德本, 『東洋醫學善本叢書』 第三冊.

名을 포함)은 『內經』에서 나타나며 새로 증가시킨 것은 186혈이다. 또한 『明堂經』에서 腧穴部位의 기재도 『內經』에서 상응하는 腧穴의 기재에 비하여 대부분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둘째, 腧穴 주치병에 따른 증상의 숫자에 있어서 『內經』에서는 針灸腧穴 치료의 병증이 매우 적은데 비하여 『明堂經』에 기재된 腧穴主治病症은 통계적으로 270개에 달하였고, 그 중에 內科 병증이 185, 外科 병증이 20, 婦兒科 병증 23, 五官科 병증 42개로 침구치료의 적응증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였다. 동시에 疾病史의 연구를 위해 풍부한 史料를 제공하였다. 셋째, 針灸腧穴 이론에도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本輸」에는 十一經의 五輸穴만 기재되어 있고 心經의 五輸穴은 빠져있다. 이 이외에 『內經』에서는 募穴、郄穴、交會穴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明堂經』에서는 상술한 腧穴 이론의 공백을 보충하였다. 이밖에 『明堂經』에서는 『內經』에서 언급한 十五絡穴 이외에 이른바 別絡穴을 기재하였다. 예를 들면 足太陽絡穴에서 “飛揚” 이외에 “委陽”의 別絡穴을 기재하였고, 任脈의 絡穴인 “鳩尾” 이외에 “會陰”의 別絡穴을 기재한 것 등이다.

『黃帝明堂經』에서도 완전치 못한 곳이 있다. 예를 들면 心包經에서 상응하는 俞、募穴을 기재하지 않았고, 腧穴의 총 숫자도 『內經』에 비하여 대대적으로 증가시켰지만 일부 腧穴에서는 “脈氣所發”의 내용을 밝히지 못한 점 등이다. 針灸腧穴의 이론이 부단하게 발전하면서 점차 완전을 기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黃帝明堂經』은 대략 西漢 末年에서 東漢 延平 年間에 성서되었고 이는 漢 이전의 針灸腧穴 문헌을 처음으로 총결한 것으로 동양의학에 있어서 첫 腧穴學 전서라 말할 수 있다. 隋唐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칙령으로 수정하여 針灸를 전문으로 하는 醫者의 필수적인 經典으로 되었고 한국, 일본 등으로 빠르게 유전하여 후세 침구학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애석하게도 이 책은 일찍이 亡佚되어 오늘날에는 본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 전통적인 침구학을 발전시키려면 옛 고전을 교정하여 복원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明堂”의 학이 오늘날까지 1000여년에 걸쳐 유장하게 내려왔고 수많은 역사적, 이론적인 문제를 발굴, 연구,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黃帝內經明堂類成』에 관한 고찰

『黃帝內經明堂類成』은 『黃帝內經明堂』이라 간칭하며 7세기초 楊上善이 注釋 개편하여 만들었다. 『舊唐書·藝文志』에서는 “黃帝內經明堂類成十三卷 楊上善撰”, 『新唐書·藝文志』에서는 “楊上善注黃帝內經明堂類成 十三卷”, 宋·鄭樵의 『通志藝文略』에서는 “黃帝內經明堂類成 十三卷 楊上善注”²⁵⁾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日本 仁和寺本에서는 “類成” 두 글자는 없다. 근래에 『類成』 殘本 卷一과 『黃帝內經太素』는 “清·光緒 연간에 定海 黃以周가 日本에서 구입”하여 들어 왔으며 아울러 『甲乙』은 “七卷에서 卷末까지 發病의 源을 상세히 기술하였다……그 文은 楊注의 『明堂』(즉 『類成』)과 모두 相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類成』은 “十二經脈을 綱領으로

25). 李茂如: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145, 149, 194.

삼고 각 經의 穴은 그 아래에 예속시켜 『甲乙』 三卷 체례와는 다르다. 『甲乙』 卷三의 經穴 배열은 頭身으로 나누고 사지에 경을 배분하였다. 楊注의 『明堂』에서는 經에 따라 穴을 통합하여 통일시켰고 注文을 달고 각 經을 一卷으로 하였으며 奇經八脈을 一卷으로 하여 十三卷으로 되어 있다.”²⁶⁾ 현존하는 仁和寺본인 『黃帝內經明堂經』 권제 1은 手太陰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肺의 무게와 형상, ② 藏하는 神(魄), ③ 肺의 大少、高下、堅脆、端正·偏傾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 ④ 體格·體形으로 알 수 있는 肺의 형상, ⑤ 肺의 오행배속과 色、時、味、日、志、氣、音、聲、榮、主、液、竅、畜、穀、星、數、變動、惡、臭、果、菜、脈과의 관계, ⑥ 十干에 따른 肺經의 左·右手의 배치, ⑦ 肺經의 流注, ⑧ 肺經의 길이, ⑨ 肺經의 숫자, ⑩ 肺經에 소속된 經혈(中府, 天府, 俠白, 尺澤, 孔最[원문에는 ‘竅’로 되어 있음], 列缺, 經渠, 太淵, 魚際, 少商의 순으로 되어 있음) 目錄, ⑪ 經穴의 명칭, ⑫ 經穴의 부위, ⑬ 針灸法, ⑭ 主治症으로 되어 있으며 ⑮ 이후는 雙行 細注로 되어 있다.²⁷⁾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類成』과 『甲乙』은 穴名, 穴位, 病候, 治法 등은 모두 같다. 그러나 經穴配列의 체례에는 두 책이 각기 다르다. 『甲乙』은 인체 부위에 따라 經을 나누었고, 『類成』은 經으로 穴을 총괄하였다. 우선 판단하기로는 『類成』의 체계가 『甲乙』보다 낮고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동양의학에서 첫 번째 침구경혈 專著이며 원본은 이미 실전되었지만 『明堂孔穴針灸治要』에 근거하였고, 이 經의 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針灸甲乙經』이다. 오늘날의 『類成』은 『黃帝明堂』 경문의 체례를 개편하여 經혈의 “上下가 倒錯되어 있고 전후가 바뀌어져 있어 本經에 부합하지 않는다”²⁸⁾. 그러므로 『類成』의 이러한 개편은 『黃帝明堂』의 經혈체례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 아니고, 『靈樞』의 經旨를 오해한 것으로, 『黃帝明堂』에서 經의 체계를 만든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類成』에 관련된 문제를 밝혀보고자 한다.

1) 『類成』의 經혈체례 개편

『針灸甲乙經腧穴重輯』(이하 『重輯』이라 간칭함) 序에서 “애석하게도 『明堂孔穴針灸治要』는……일찍이 亡佚되었다……오늘날 善忱 등이 이 책을 편집하였으나……그 체례는 오히려 『黃帝內經明堂類成』을 모호하게 하였다.” 또한 『重輯』 編者의 설명에서 “皇甫謐이 ‘三部同歸’, ‘錯互非一’이라 하였는데 애석하게도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그러나 『黃帝內經明堂類成』으로 볼 때 이러한 重輯을 통하여 실로 그 대부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重輯』의 의도는 『類成』의 체례를 모방하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重輯』에서는 「經脈」을 기강으로 삼아 『甲乙』 卷三 腧穴을 經으로 혈을 통괄한 「經脈」의 체례로 개편하였다. 手太陰肺經의 11혈은 “起于中府 終於少商”하는 11혈이다. 手太陰肺經 11혈을 살펴보면 최초에는 宋代 『銅人』(1026년)에서 『甲乙·明堂』의 “手太陰及臂” 9혈을 근거하여 “肺之募也”인 中府와 “手太陰脈氣所發”인 雲門을 추

26). 李鼎: 『針灸甲乙經腧穴重輯』本批評, 上海針灸雜誌, 1983, 2期.

27). 仁和寺本 黃帝內經明堂: 前揭書, 東洋醫學叢書 第三冊, pp. 513~550.

28). 王雪苔: 『針灸甲乙經腧穴重輯』序,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2.

가하고 점을 선으로 연결시켜 만들었다. 그 경은 「本輸」를 正經으로 삼고 “別”, “發”하는 여러 혈을 추가하였다. 그 혈은 “起于少商穴 終于中府穴”한다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 宋代 『聖濟總錄』(1117년)에 이르러 “起于中府 終于少商”하는 「經脈」 배열의 11혈로 전도되어 오늘날까지 유전되어 오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잘못 알고 경으로 혈을 통합한 「經脈」의 체례가 『類成』에서 전래되었다고 오인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렇게 개편된 체례는 “腧穴과 經絡이 분리된” 『甲乙·明堂』을 보충하여 『黃帝內經明堂』의 원래 모습을 “거의 회복”²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甲乙』에는 결코 “經穴이 分離된” 폐단은 없으며, 개편된 체례인 『類成』이 임상에서 辨證施治하는데 있어서 取穴과 用穴에 비교적 편리한 점은 있지만 『甲乙·明堂』의 순행계통과 腧穴의 起止 순서를 전도시켜 후인들에게 『甲乙·明堂』의 진면목을 잘 알지 못하게 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

『甲乙』은 『明堂』의 정통성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明堂』은 『甲乙』에 의해 전해지고 『甲乙』은 『明堂』으로 인하여 높이 평가되었고”³⁰⁾, “六朝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침구를 傳授, 연구하고 침구 전적을 校注하는데 『針灸甲乙經』을 규범으로 삼지 않음이 없다”³¹⁾고 하였다. 皇甫謐은 甘露(260년) 연간에 “『素問』, 『九卷』, 『明堂孔穴針灸治要』 三部를 같이 귀속시켜 비슷한 것끼리 상종시키는” 방법으로 『甲乙經』을 편찬하여 완성시켰는데 개인적인 억측으로 注를 달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가 지향한 經文은 『靈樞』, 『素問』 이외에 바로 『明堂』이었다. 오늘날 『明堂』은 失傳되었지만 『甲乙』에 있는 經혈이 바로 『明堂』의 經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黃帝三部”는 바로 『靈樞』, 『素問』, 『明堂』이라고 말할 수 있고, 『甲乙』의 經혈이 『明堂』의 정통임은 의심할 바가 없다. 清代 黃以周는 “皇甫(謐), 楊(上善)氏皆直取『明堂』原文”이라 하였다. “直取”는 원본을 직접 취득한 것이지만 다른 책에서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類成』이 성서된 시기를 고찰하면 666년 전후로 『太素』가 저작된 시기와는 그렇게 멀지 않으며, 이 시기는 『甲乙』이 성서된지 이미 40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類成』 이전에 甄權(540~643년)이 왕의 명을 받들어 『明堂』을 重修하였는데 이미 “관직에서 물러나 『甲乙』로 秦承祖의 明堂圖를 교정하였다”³²⁾고 하여 『明堂』의 원문을 직접 구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이후 저작한 楊上善은 직접 『明堂』의 원문을 취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類成』은 『甲乙』에서 『明堂』의 원문을 간접적으로 취하여 이를 개편하여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책 이름을 『類成』이라 붙인 것으로 보아 『類經』과 같이 간간히 개인적인 추측에 의한 注가 많아 결코 『甲乙』의 經문과 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甲乙·明堂』의 經혈체례는 『類成』의 개편으로 인하여 부득불 본래의 면목이 사라지게 되었다.

2) 『類成』의 官撰 여부

29). 『針灸甲乙經腧穴重輯』: 前掲書. “得其大半”.

30). 李鼎: 前掲書.

31). 孫思邈: 『千金翼方』, 卷26, 取孔穴法篇, 人民衛生出版社版. p.239.

32). 上掲書.

『中醫大辭典·醫史分冊』에서 “『類成』은 일찍이 唐代 정부에서 針灸를 학습하는 주요한 교과서로 규정하였다. 唐 이후에 失傳되었다”³³⁾고 하였다. 『太素』가 성서된 시기가 唐 高宗 乾封元年(668년) 이후인 점으로 볼때 『類成』의 성서는 그 전후로 그리 멀지 않다. 이 책이 唐 太宗 때 정부 관서라면 『千金』(652년)에서 마땅히 인용했을 것이다. 이 책이 唐 高宗 이후의 官書라면 『外臺』(752년)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千金』이나 『外臺』에는 『類成』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醫史分冊』의 설에 다른 근거가 없다면 『類成』은 唐代의 官書가 아니고 楊上善의 개인적인 저작에 불과하다고 추단할 수 있다. 『外臺秘要』 卷39 明堂序에서 “『明堂』, 『甲乙』은 의사들의 진기한 보물로 후학들은 이를 좇아 행해야 하며 바른 이치에 어긋나는 異說을 따라서는 않된다”³⁴⁾고 하였고, 또한 甄權은 “내 나이 58살 되는 해에 의학에 뜻을 두기 시작하여 올해로 100살이 넘게 되었다. 그 동안 經方을 자세히 연구하고 孔穴을 궁구한 바 헛갈리는 곳이 무척 많았다……침을 시술하려면 반드시 『黃帝』의 정통적인 경전에 의거해야 한다……내가 자리에서 물러나 『甲乙經』으로 秦承祖(420~495년)의 明堂圖를 교정하였는데……그 명당도에서 빠진 곳이 많고……상하가 섞이고 앞뒤가 바뀐 곳이 많아 『甲乙經』와 부합하지 않았다……이러한 것을 깊이 경계해야 한다”³⁵⁾고 하였다. 甄權은 唐 太宗 시기에 朝散大夫를 지냈으며 대략 南北朝 梁 大同六年(540년)에 태어나 唐 貞觀 17년(643년)에卒하였다. 일찍이 唐 太宗의 명을 받들어 『明堂』을 重修하였는데 그의 저서인 『明堂三人圖』의 圖는 이미 실전되었으나 그 글은 『千金』 권29에 남아 있다. 『外臺』는 王燾가 弘文館에 수집된 역대 醫經을 근거하여 唐 玄宗 天寶 11년(752년)에 저작하였다. 甄權의 말을 살펴보면 秦承祖의 圖가 “上下倒錯”되었다고 하였는데 手太陰을 예로 들면 “出于少商”과 “終于少商”으로 되어 있다. 『外臺』에서 “異說”이라 한 것은 『甲乙』 본경의 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楊上善은 甄權, 王燾와 같은 시대의 전후 사람으로 『類成』은 『甲乙』 경혈체례를 개편하였으며 秦承祖의 圖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類成』은 唐代에서는 이미 “不合本經”한 “異說”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의미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3) 현행 經穴體例의 유래

현행하는 경혈체례는 “『內經』 이후로 역대 의가들은 모두 「經脈」篇에서 기술한 十二經脈의 순행을 따랐다”³⁶⁾고 말하기도 하고, “이는 宋代 『聖濟總錄』(1117년)에서 처음으로 經으로 穴을 통합한 『靈樞·經脈』을 이용하여 후세 經穴의 ‘規範化、系統化’에 기초를 세웠다”³⁷⁾고 하기도 하며, 또한 “『類成』이 「經脈」의 체례를 이용한 이후, 오늘날까지 유전되어 오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증하면 현행하는 경혈체례는 『類成』에서 전래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明堂』

33). 『中醫大辭典·醫史分冊』: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 編, 人民衛生出版社, 1981, p221.

34). 王燾: 『外臺秘要·卷三十九』, 文淵閣四庫全書本.

35). 千金翼方: 前揭書.

36). 李志道: “「足臂十一脈灸經」學術觀點在『內經』中的體現”, 『中醫雜誌』, 1982, 2期.

37). 魏稼: 『聖濟總錄』의 鍼灸學成就, 中國針灸, 1983年 第2期.

경혈은 『內經』 이래로 『甲乙』, 『千金』, 『外臺』에서 『銅人』에 이르기까지 1000년 이상 모두 「經脈」이 사용되지 않았다. 현행하는 경혈체례는 宋代 『聖濟總錄』에서 비롯되어 元代 『金蘭循經』, 『十四經發揮』에서 가공되고 明代 『針灸聚英』에서 선양되어 오늘날까지 유전된 것이다. 이상한 것은 『聖濟』, 『發揮』에서 모두 『類成』을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며, 『針灸聚英·集用書目』에도 『類成』은 실리지 아니하였고, 그 후 『針灸大成·針道源流』에서도 『類成』은 없으며, 『類經圖翼』, 『醫宗金鑑』에서도 또한 『類成』의 흔적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黃帝”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경혈체례를 변호한 『類成』은 역사적인 사실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현행하는 十四經이 『類成』의 經穴體例과 완전히 부합하는 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현행하는 十四經體例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類成』을 경으로 혈을 통합한 「經脈」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체례로 보고 있다. 고증에 의하면 현행하는 十四經體例는 『類成』에서 전래된 것이 아니고 『聖濟』에서 전래되었으나 『聖濟』 또한 「經脈」의 순행계통을 진지하게 고증하지 않고 단지 『銅人』의 365穴의 穴名, 穴位, 穴數를 사용하여 「經脈」의 순행방향으로 전도시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착오가 있게 되었다. 이후에 『發揮』의 가공을 거쳤지만 끝내는 본래 『甲乙·明堂』의 모습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順文敷衍”, “以訛傳訛”하게 되었다. 이에 대략 몇가지를 다음과 같이 거론해 보기로 한다.

(1) 任, 督脈과 영기의 순행은 부합하지 않는다

『靈樞·營氣』는 營氣之道的 總則이고, 『靈樞·經脈』은 營氣之道的 細目이다. 「營氣」에서 手太陰에서 足厥陰까지 언급한 후에 “그 分支는 別行하여 이마 부위로 상행하여 정수리 증앙을 따라 하행하고……척추를 따라 미골에 이르는데 이것이 督脈의 순행 통로이며……陰器 주위에絡하고……상행하여 복부 안을 따라 缺盆으로 들어가서 하행하여 肺로 유주하고 다시 手太陰 肺經을 따라 순환유주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營氣가 운행하는 경로이다”고 하였다. 「經脈」에서는 “肝足厥陰之脈……上出額 與督脈會于巔”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營氣」의 全文은 신지 아니하였다. 이후 『太素』, 『發揮』의 注에서는 「經脈」의 “會于巔”만 나타나고 「營氣」의 督任脈 운행과 “復出太陰”하는 의미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한편으로 『甲乙』, 『銅人』에서 「本輸」의 向心性 경혈을 고쳐 周而復始하여 “復出太陰”하는 「經脈」의 순환 경맥으로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甲乙』, 『銅人』의 任, 督脈 계통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督, 任 배치는 「經脈」 체례에 따르게 되어 후학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2) 現行하는 十二經穴은 「經脈」의 起止와 부합하지 않는다

「經脈」의 循行起止를 살펴보면 “肺手太陰之脈 起于中焦”하는 것은 “起于中府”하는 것과 상응하지 않으며, “從肺系橫出腋下”한다고 하였지 喉嚨에서 中府로 “橫”으로 向하고 雲門으로 상행하여 다시 하행하여 “腋下”에 斜入하지 않는다. “胃足陽明之脈 起于鼻 交頰中”한다고 하였지 “起于頭維”하지 않는다. 지금은 “起于承泣”으로 고친 『發揮』를 따르지만 여전히 원문과 차이가 있다. 이밖에 足陽明의 內庭, 厲兌는 “足陽明之脈……下足跗 入中趾內間……其支者……入中趾外間”과는 穴位가 부합하지 않는다. 中趾 內外間과 次趾 內外間은 다르기 때문이다. 手厥陰, 手少陽은 모두 正脈이 시작하는 곳에는 穴이 없고 또한 “支者”에서 혈이 시작하는 등 모두 「經

脈」의 循行起止와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楊上善이 저작한 『類成』은 『甲乙』이 저작된지 400년 후에 『黃帝明堂』의 경문을 간접적으로 취하여 개편하여 만든 개인적인 編著로 唐代的 官書가 아니었다. 현행하는 十四經體例는 『類成』에서 전래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통용되는 經으로 穴을 통합한 「經脈」의 체례는 『類成』에 의거하여 변호될 수 없다. 『甲乙·明堂』 경혈이 “明堂”의 정통이라는 것은 국내의 침구학자들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甲乙』과 『類成』의 경혈체례가 어느 것이 “正統”이고 어느 것이 “異說”인지 쉽게 판별된다. 경으로 혈을 통합한 현행하는 「經脈」의 체례를 살펴보면 『黃帝明堂』의 본래 면목이 아니다. 따라서 『明堂』의 정통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분석하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 두어야 할 것이다.

3. 『黃帝明堂』에 대한 『千金方』과 『外臺』의 공헌

652년 孫思邈이 찬한 『千金要方』 30권은 모두 232門, 5300首의 方論으로 되어 있으며 內、外、婦人、小兒、五官科 및 解毒、急救、食治、按摩、脈學、針灸 등을 포함하고 있어 동양의 학에서 현존하는 최초의 醫學百科全書라 할 수 있다. 『千金翼方』(682년) 30권은 『千金』의 내용을 보충하고 本草 및 임상 각과 등에 관하여 언급하여 동양의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752년 王燾가 찬한 『外臺秘要』는 『千金方』을 계승한 또 하나의 종합적인 의학 저작이다. 全書는 모두 40권이고, 1104門으로 나누었다. 고대로부터 唐初에 이르기까지 의학 전적을 전면적으로 보존하고 정리하였다. 따라서 『千金』과 『外臺』는 隋唐 시기까지 동양 의학을 포괄한 대표적인 醫籍이라 할 수 있다.

『千金』에는 「明堂三人圖」 專篇이 있다. 이것은 『甲乙』 이후 현존하는 문헌 중에서 『明堂孔穴』의 경문을 고증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圖는 이미 실전되었지만 경문은 여전히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경혈의 배열은 「本輸」를 正經으로 삼은 『甲乙』의 체례를 따랐다. 『翼方』 권26 「取孔穴法篇」에서도 「本輸」의 正、榮、輸、原、經、合 앞에 募穴, 뒤에 俞穴를 추가하여 하나의 經으로 삼았으며, 모두 向心으로 순행하는 12正經을 만들었다.

『外臺秘要』(752년)에서는 『甲乙』, 『千金』의 正統을 따른 것 이외에 원래 分經된 부분을 기초하여 인체의 12身圖를 그렸다. 즉 인체를 그린 하나의 그림에 하나의 經 혹은 두개의 經을 그린 것으로 애석하게도 原圖는 이미 失傳되었다. 또한 『明堂』에서 “脈氣所發”이라 한 것을 근거로 點을 線으로 연결하여 처음으로 14經을 만들었다.

1) 『千金·明堂』은 『黃帝明堂』을 계승하였다

孫思邈이 저작한 『千金』과 『翼方』은 『明堂』 경혈 방면에 공헌을 하였다. 근대 魏稼는 『針灸各家學說講義』에서 “『千金』은 첫번째와 두 번째의 이정표를 세운 『內經』, 『甲乙』을 계승하여 세번째의 이정표를 세웠다…… 침구의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옛 것을 계승하여 후

학에게 길을 열어준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國外에 대하여……日本の『醫心方』, 朝鮮의 『東醫寶鑑』 등도 鍼灸學에 관한 내용을 많이 轉載하였다”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千金』에 이미 失傳된 『明堂三人圖』의 專篇이 남아 있으며, 이것과 『甲乙』 卷三에 남아 있는 『明堂』 경문은 오늘날 『明堂孔穴』 圖經을 고증하는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설득력이 있는 문헌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千金』의 方藥을 중시하였지 針灸經穴 方面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1) 『千金要方』의 『明堂』

1. 가장 오래된 고대 「明堂三人圖」의 경문이 남아 있다 : 『千金』 권29에 「明堂三人圖」의 專篇(이후 「千金明堂」이라 간칭함)이 있다. 지금은 원래의 그림은 볼 수 없지만 경문은 결락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옛 명당도는 연대가 너무 오래되고 초록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지침서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제 甄權 등의 명당에 의거하여 새롭게 편찬하여 확정하였다”³⁸⁾고 하였다. 또한 “明堂正經에 의한 것 같다……12經脈을 다섯 색깔로 표시하였고, 奇經八脈은 녹색으로 표시하였다. 明堂 3인도의 孔穴은……정면 282혈, 배면 194혈, 측면 174혈을 표시하였다. 혈명은 모두 349혈인데 單穴이 48개이고 雙穴이 301개이다”고 하였다. 상술한 경문을 고찰하면 魏氏의 『講義』에서는 “五色作圖”가 孫이 만든 것으로 보았지만 이 圖는 甄權이 만든 것으로 孫은 단지 “이것은 甄權의 명당 등을 근거하여 새롭게 만들어 정하였다”. 그러나 이 圖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오늘날 原圖는 이미 佚失되었고 단지 「明堂三人圖篇」의 경문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千金』에 「明堂孔穴」의 三人圖가 남아 있었다는 것은 『甲乙』에 「明堂」의 경문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千金·明堂』은 『甲乙·明堂』으로 볼 수 있는 증거이고, 『甲乙·明堂』은 실제로 『千金·明堂』의 모체이다.

2. 『甲乙·明堂』은 349혈이지 348혈이 아니다 : 1979년 출판된 山東中醫學院 『針灸甲乙經校釋』³⁹⁾(다음부터 『甲釋』이라 간칭함)의 前言에서 『甲乙』 卷三에 腧穴이 348개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對校해 본 결과 『甲釋』 卷三에는 350개의 혈명이 있고 靑靈穴은 『銅人』에서 增補한 것이라고 注釋에서 설명하였지만 그러나 正文에서는 여전히 “原文”으로 표시해 놓았다. 그러므로 “靑靈”을 제외하면 349穴이 된다. 이러한 하나의 穴의 차이로 관련된 것에 대한 고증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千金·明堂』에 있는 穴名、穴數、穴位 등을 『甲乙·明堂』과 대조해 보면 완전히 같다. 또한 『甲乙·明堂』의 「明堂孔穴」에서 「明堂三人圖」의 유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권3의 經穴 배열을 분석하면 正、側、伏 三人圖에 따라 穴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千金』에서 남겨 놓은 『明堂三人圖』 專篇은 穴名、穴位가 『甲乙·明堂』과 같고 또한 “舊明堂圖”와 “退以『甲乙』校秦承祖圖”을 모두 나타내었다. 『千金』의 「明堂三人圖」는 「明堂孔穴」의 三人圖를 修訂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千金·明堂』으로 『甲乙·明堂』이 349혈이지 348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3. 十二經 經名の 標題를 처음으로 改稱하였다 : 『甲乙·明堂』에서 十二經 經名の 標題에 대

38). 『千金要方·卷第二十九·明堂三人圖第一』, 前掲書.

39). 針灸甲乙經校釋: 山東中醫學院 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9.

하여 手太陰을 예로 들면 “手太陰及臂”라 하였는데 『千金·明堂』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手太陰肺經”으로 개칭하였고 이것이 후세 『外臺』, 『銅人』 및 현대적인 經名의 標題에 기초가 되었다.

4. 『甲乙·明堂』의 腧穴 배열에 대해 이를 계승하고 처음으로 조정하였다 : 『千金·明堂』에서는 『甲乙·明堂』의 經혈체례를 계승하고 이를 기초로 처음으로 腧穴을 조정하였다. 手太陰을 예로 들면 『千金·明堂』에서는 『甲乙·明堂』의 “手太陰及臂” 舊穴을 계승하고 이 이외에 별도로 『甲乙』에서 肩部에 있는 “臑會”穴을 手太陰 天府 뒤에 배열하여 “手太陰肺經十穴”로 만들었다. 그밖에 『甲乙』의 手太陰肺經과 관련한 中府、雲門、肺俞에 대하여 그 부분의 穴에 배열하여 후세 腧穴 배열의 계승과 발전에 선례를 제공하였다.

(2) 『千金翼方』의 『明堂』

1. 『甲乙·明堂』의 經혈 배열을 계승하여 처음으로 순서를 개정하였다 : 『翼方』 권26 「取孔穴法篇」에서는 手를 먼저 두고 足을 뒤에 배열하고, 陰經을 앞에 두고 陽經을 뒤에 둔 『甲乙·明堂』의 經혈배열 순서를 처음으로 12경의 표리 순서에 따라 개정하여 배열하였다. 즉 肺→大腸→心→小腸→心包→三焦→脾→胃→肝→膽→腎→膀胱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이는 후세에 계속 개정되었는데 單經에 따른 배열법의 선례를 제공하였다.

2. 12경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처음으로 제공하였다 : 『翼方』 권26에서 “五臟六腑 三陰三陽 十二經脈 臟腑出井、流榮、注俞、過原、行經、入合、募前、俞後、假令肺手太陰爲臟 出于少商爲井……入于尺澤爲合 募在中府 俞在第三推(旁) 他皆仿此”라 하였다. 그리고 「三陰三陽流注法」篇에서는 상술한 12경의 經名、穴名을 구체적으로 배열하였다.

위의 내용은 『千金』 권29 제4 「五臟六腑變化旁通訣」에서 함의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孫은 12경의 正經인 「本輸」에 대하여 깊이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千金』 시기에서 12경은 「經脈」을 正經으로 삼지 않았고, 삼음삼양의 유주도 “起于中焦”하여 周而復始하면서 循環流注하는 것도 아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3. 『明堂』 經혈이 唐代에 이미 착오가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 『翼方』 卷26 「取孔穴法」篇에서 甄權(540~643)이 “내 나이 58살 되는 해에 의학에 뜻을 두기 시작하여 올해로 100살이 넘게 되었다. 그 동안 經方을 자세히 연구하고 孔穴을 궁구한 바 헛갈리는 곳이 무척 많았다……침을 시술하려면 반드시 『黃帝』의 정통적인 經筋에 의거해야 한다……내가 관직에서 물러나 『甲乙經』으로 秦承祖(420~495년)의 明堂圖를 교정하였는데……그 명당도에서 빠진 곳이 많고……상하가 섞이고 앞뒤가 바뀐 곳이 많아 『甲乙經』과 부합하지 않았다……이러한 것을 깊이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였다.

14經에 대한 이론이 唐 이전에 완성되었지만 『千金』에서 이를 더욱 발휘시켰음을 알 수 있다. 針灸經穴圖는 南北朝 시기에 이르러 대량으로 출현하였지만 각 의가들의 師承 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抄寫에 착오가 있었다. 따라서 『千金』에서는 “옛 성인이 떠나신지 너무 오래되었고 배우는 사람들은 몽매하기 때문에 公혈의 출입에 대한 경의 근원을 헤아리지 못하니, 쇠약하고 위태로운 환자를 구하는 임상에 있어서 미혹되는 바가 많다”고 하였다.

(3) 『千金』에 기재된 기타 사항

위에서 언급한 流傳에 관한 상황을 제외하고 두 책에 산재되어 있는 의미가 비슷한 논점을 아래에 열거해 보기로 한다.

1. “其穴三百六十五”에 대한 공헌 : 『甲乙·明堂』 卷三의 첫머리에 “氣穴三百六十五以應一歲”라 하였지만 현재 346혈만 남아 있다. 1982년에 공포한 『針灸穴名國際化方案』에서는 361혈이다. 『甲乙』의 349혈을 제외하면 후세에 증보된 26혈은 대략 고증되었는데 『千金』에서 나타나는 것이 4혈이다. 그리고 『千金』은 경혈의 歸經 方面에도 커다란 공헌이 있었다.

(1) 膏肓俞 : 원래 『千金』 卷30 「雜病」篇, 『翼方』 卷26 「取孔穴法」篇에 나타난다. 그러나 「明堂三人圖」 속에는 모두 歸入되지 못하고 『外臺』에서 『千金方』을 근거로 삼아 처음으로 膀胱人(經)圖 안에 포함시켰다.

(2) 厥陰俞 : 원래 『千金』 卷17 「積氣」篇에 闕俞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며 역시 歸經은 없다. 『銅人』(1026)에서 厥陰俞로 이름을 바꿔 膀胱經에 增入시켰다.

(3) 關元俞 : 그 부위는 『翼方』 卷26 「消渴」篇에서 비롯되었으나 穴名이나 歸經은 없다. 『資生』(1220)에서 처음으로 귀경시켰다.

(4) 風市 : 원래 『千金』 卷30 「四肢篇」, 「風痺篇」 및 『翼方』 卷26 「脚氣篇」에 나타나며 『資生』에서 처음으로 귀경시켰다.

2. “經外奇穴”에 대한 공헌 : “經外奇穴”은 오늘날 사람들은 「經脈」의 순행노선을 經內로 보고 이를 제외한 침구 부위나 혈위를 “經外奇俞”라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千金』에서는 「明堂三人圖」의 경혈을 經內로 보았고 「明堂三人圖」에 속하지 않는 혈위는 일률적으로 귀경시키지 아니하였는데 후인들은 이를 “經外奇穴”이라 명명하였다. 전술한 4혈 모두가 『千金』에서 기원하고 또한 모두 經內에 순행하지만 『千金』에서는 귀경시키지 아니하였으나 후인들은 이를 근거로 귀경시켰다. 그러므로 “經外奇穴”에 대한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마땅히 『千金』을 근거로 삼아야만 비로소 經旨에 부합할 것이다.

전통적인 경혈은 『明堂孔穴』이 만들어진 후이며 현존하는 『甲乙』 卷三의 경문으로 볼 때 「明堂三人圖」는 이미 있었다. 현재 原圖는 이미 失傳되었으며 『千金』에 다시 「明堂三人圖」 專篇이 있고 正、側、伏 三人의 經穴起止、穴名、穴位、穴數를 記載 하였는데 모두 『甲乙』 卷三의 경문과 부합한다. 그러므로 『千金』에서 「明堂三人圖」을 보존하고 있는 공로는 『甲乙』에서 『明堂』 경문을 보존하고 있는 공로와 같다. 오늘날 『明堂孔穴』을 말할 때에는 당연히 『甲乙·明堂』과 『千金·明堂』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침구학에서 실제로 운용되는 경혈체례에는 『甲乙·明堂』과 『千金·明堂』 본래의 모습은 없어지게 되었다.

2) 『黃帝明堂』에 대한 『外臺秘要·明堂』의 공헌

(1) 『明堂』의 정통을 계승하고 異說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外臺秘要』(『外臺』라 簡稱함)는 唐代 王焘가 왕실의 弘文館(오늘날의 국립도서관에 해당함)을 20여년간 출입하면서 저작한 거저이다. 그 중에 『明堂』 경혈과 관련된 專篇(『外臺·明堂』이

라 간칭함)이 있는데 『千金·明堂』과 함께 중시되며 보다 창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卷39 「明堂·序」에서 “『明堂』、『甲乙』은 의사들의 진기한 보물로 후학들은 이를 좇아 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치에 어긋나는 異說을 따라서는 않된다”고 하였다. 「十二身流注·五臟六腑明堂」은 「本輸」를 正經의 기초로 삼고 『甲乙·明堂』을 계승하는데 이바지하였다.

(2) 『明堂三人圖』에서 十二身圖로 발전시켰다

『外臺·明堂』序에서 “제가들은 모두 仰人、背人、側人 三人으로 圖를 그렸지만 지금은 12經에 따라 인체의 12身을 그렸다”고 하였다. 각 “身”의 圖를 그린 곳에 모두 臟腑로 명명하였는데 手太陰肺經圖와 같은 것은 “肺人”이라 제목을 달았고, 手陽明大腸經圖는 題名을 “大腸人”이라 하여 직접적으로 經脈의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 任、督經은 「本輸」의 足少陽、足太陽 안에 각각 그려져 있는데 이는 하나의 圖에 두 經을 묘사한 방법을 취하였다. 오늘날 사람들은 『外臺』에서 任、督脈이 足少陽、足太陽經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外臺·明堂』에 대한 오해이다. 十二人身圖는 실제로 十四經의 單經圖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外臺』는 이미 그 효시가 되었다.

(3) 經穴를 증보시킨 선례를 남겼다

『甲乙·明堂』卷三의 첫머리에 『素問·氣穴論』 “氣穴三百六十五以應一歲”의 經文을 轉錄하였다. 그러나 『甲乙·明堂』에는 349穴만 남아 있고, 후에 『千金』에 많은 腧穴이 산재되어 있으나 『千金·明堂』에서는 모두 귀경시키지 아니하였다. 『外臺』에 이르러 처음으로 『千金』 등에 산재된 『明堂』 이외에 後液、陰郄、膺突、脇堂、旁庭、始素、轉谷、膏肓 등의 穴을 증보, 귀경시켜 351혈로 만들었다. 오늘날 『國際穴名方案』의 361혈 중에 『外臺』에서 처음으로 歸入된 膀胱經의 膏肓穴이 그 속에 들어 있고 기타 여러 穴은 『方案』 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365혈을 복구시키려는 『外臺』의 구상은 이미 후세에 經穴을 증보, 귀경시키는데 있어서 본보기가 되었다.

(4) 『千金·明堂』의 臟腑表裏六合에 따른 經穴 배열순서를 계승하였다

『外臺·明堂』에 배열된 經穴은 『甲乙·明堂』을 기초로 계승하였고 『千金·明堂』의 순서를 고쳐서 사용하였는데 즉 “肺人”、“大腸人”、“脾人”、“胃人”…… 등이다. 이는 『外臺』 시기의 經脈流注를 말한 것이지 周而復始하면서 유주하고 “穴出雲門 至期門而最後”하는 規律을 가진 「經脈」을 가리킨 것은 아니다.

(5) 부위에 따라 腧穴을 귀경시킨 선례를 남겼다

『甲乙·明堂』, 『千金·明堂』에서 부위에 따라 腧穴을 귀경시켰지만 어떻게 귀경시켰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또한 南北朝부터 『明堂』 經穴에 “異說”이 있었는데 『外臺』에서는 “異說”을 적극 배제한 기초 위에 “上下倒錯 前後易處”된 腧穴을 바로 잡아 위에서 언급한 각 부위에 따른 腧穴을 처음으로 經으로 穴을 통괄하는 선례를 제공하였다(즉 十二身圖의 歸經을 말한다).

(6) 『千金·明堂』의 五色三人圖에 대한 증거를 남겼다

『千金·明堂』에 “十二經脈 五色作之”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原圖는 이미 실전되었다. 오늘날의 『外臺·明堂』에서도 “五色作圖”說을 轉錄한 것으로 보아 『千金』이 저작된 100년 후인 『外臺』 시기에 이 圖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실전되었지만 『千金』에 기재된 것이 믿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外臺』는 『甲乙·明堂』을 계승하여 발양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지만 몇몇 결점이 있음을 면치 못하였다.

1. 새롭게 제시한 것 중에서 구체적인 논증이 결핍되어 있다 : 『外臺』 서문에서 『甲乙·明堂』을 칭찬하였지만 十四經의 구체적인 歸經에 대하여 雲門、中府가 왜 “脾人”(足太陰)에 소속되어 있으며, 『千金』에 나타나는 俞、募穴에 대한 歸經法은 왜 언급하지 않았으며, 臟腑背俞를 太陽에 소속시키고 臟腑의 募穴을 다른 경에 소속시킨데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논증이 없다. 따라서 후인들이 이를 맹종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

2. 臟腑 俞募의 귀경이 맞지 않다 : 전통적인 경혈 중에서 臟腑 俞募에 대한 經文의 의미를 분석하면 『千金』에서 인식한 것이 비교적 정확하다. 그러나 『千金』의 착상이 후인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背部에 있는 背俞는 「經脈」의 足太陽에 소속하는 腧穴에 속한다고 보았고, 胸腹에 있는 腹募는 당연히 그 經에서 말하는 腧穴로 보았다. 이러한 착오는 『外臺』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후세에 이를 맹종하여 장부의 背俞를 向心성 경맥인 「本輸」의 足太陽에 소속시켜 오늘날까지 유전되어 왔다. 『外臺』에서는 臟腑 募穴에 대하여 「經脈」, 「經別」의 순행을 근거로 각각 아래와 같이 歸經시켰을 것이다.

- (1) 肺、肝、膽의 募는 “脾人”(足太陰)에 소속시켰다.
- (2) 心、小腸、胃、膀胱、三焦의 募는 任脈(足少陰圖 안)에 귀속시켰다.
- (3) 脾、腎의 募는 足少陽에 소속시켰다.
- (4) 大腸募는 足陽明에 귀경시켰다.

『甲乙·明堂』의 募穴 注文을 살펴보면 모두 “肺之募也”、“脾之募也”라 하였다. 俞穴의 주문은 辨別이 요구되는 膽, 三焦募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在第×推下”라 하였지 “足太陽脈氣所發”이라는 말은 없다. 이러한 注文은 『靈樞·背腧』와 經氣가 모이는 것에 의거하였으며 이와 “四關”의 本經은 그 근원이 같은 하나의 經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경맥이 “所過”、“所會”하기 때문에 다른 경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 『外臺』에서 經으로 나누어 穴을 통합하기 위하여 『甲乙·明堂』의 俞募를 위와 같이 귀경시켰는데 실제로는 결점으로 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外臺·明堂』의 공헌을 분석하면 『甲乙·明堂』의 정통성을 계승하였고, 腧穴의 歸經에 적절치 못한 곳이 있긴 하지만 經脈循行의 커다란 방향에서는 “上下倒錯”된 “異說”은 아니다. 『外臺』에서 “침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針能殺生人 不能起死者)”고 하였기 때문에 灸를 중시하고 針을 경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말은 『靈樞·玉版』에서 轉錄한 것이지 결코 王燾가 만든 것은 아니다. 經文의 앞뒤를 살펴보면 “針能殺人”이라 한 것은 후인들이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환기시킨 것에 불과하며 針法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4. 『銅人腧穴針灸圖經』과 『黃帝明堂』과의 관계

1) 『銅人腧穴針灸圖經』이 성서된 배경

宋 仁宗 시기에 王維一이 왕의 명을 받들어 銅으로 經穴模型을 주조하고 天聖 4년(1026년)에 『銅人腧穴針灸圖經』(이하 『銅人』으로 약칭함)을 저술하였다.

송대 황제는 의학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송 太祖는 開寶年間에 醫官인 劉翰 등에게 명하여 본초 문헌을 정리하게 하여 唐代 『新修本草』를 기초하여 와전된 것을 바로잡고 결락된 것을 보충하여 개보 6년에 『開寶本草』를 편성하였다. 太宗도 의학에 관심이 많아 소장된 의서에서 醫方 萬餘首를 수집하였다. 太平興國 3년(978)에 의관 王懷隱 등에게 편집 정리케 하고 太平興國 6년(981) 12월에 “訪求醫書詔”를 반포하여 의학 거저인 『太平聖惠方』을 편찬하는데 기초를 닦았다. 고대 의가들은 예로부터 침과 약을 함께 중시하였으므로 정부 조직이 藥과 方을 편수한 뒤에 침구 “明堂”을 정리하는 작업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唐代 정부가 여러차례 수정한 침구경전인 『明堂經』은 이미 없어졌고 詔를 내려 책을 수집하였으나 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송 仁宗은 天聖年間에 의관인 王維一이 주관하여 계통적인 針灸腧穴 典籍을 편수할 것을 명하여 실전된 『明堂經』을 대체하고 당시 침구교육과 침구임상의 필요에 부응시키려 하였다. 이전에 편찬한 『開寶本草』와 태종이 대규모로 징집한 의서 속에 수집된 침구문헌과 『太平聖惠方』을 편찬할 때 수집된 침구문헌이 나중에 王維一이 『銅人』을 편찬하는데 크다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왕유일이 『銅人』을 편찬할 때 참고한 침구문헌은 대체로 王懷隱이 수집한 針灸文獻을 벗어나지 않으며 『銅人』의 編輯 體例 및 編寫 방법도 『開寶本草』를 참조하였다. 특히 『銅人』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 원문을 『太平聖惠方·針經』에서 대부분 인용하였고, 심지어 卷首에 실린 세 폭의 正、伏、側 3인 經絡圖에 따른 사람의 造型도 『針經』의 상응하는 穴圖와 완전히 같다.

『銅人』에서 참고한 전대의 문헌 중에서 인용한 횟수에 따라 배열하면 『外臺秘要』, 『太平聖惠方·卷九十九·針經』, 『靈樞經』, 『甲乙經』, 『素問·王冰注』, 『千金要方』, 『太平聖惠方·卷一百·明堂』의 차례이다.

근대 의가들은 이 책을 針灸學史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유산으로 보고 있다. 『銅人』은 『黃帝明堂』 이후 경혈에 대한 전문적인 저서이다. 여기에서는 부위에 따라 經을 나누어 혈을 圖記한 『黃帝明堂』의 순서를 계승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外臺』에서 비롯된 14경을 완성시켰으며 12경의 循行起止를 명확하게 나타내었다. 手太陰을 예로 들면 “起於少商穴 終於中府穴”라注하여 고대 12경이 모두 향심으로 순행하는 맥기인 「本輸」를 正經으로 삼았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明代 『針灸聚英』에서 “『明堂針灸』, 『甲乙』, 『銅人』, 『千金翼』諸書……殊無經絡起止次序 今以滑氏『十四經發揮』……經絡繪圖”라 언급한 후부터 근대 침구가들은 『銅人』의 경전적인 가치는 중시하였지만 經穴體例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홀히하였다.

2) 『銅人』 체례에 대한 오해

1957년 판인 黃竹齋의 『重訂銅人腧穴針灸圖經』은 『十四經發揮』(이하 『發揮』라 簡稱함)와 『靈樞·經脈』을 이용하여 경으로 혈을 통합한 체례에서 『銅人』의 354혈을 다시 새롭게 배열하여 書名을 “重訂”이라 하였다. 王維一이 『銅人』을 편찬할 당시에는 『靈樞』의 원본은 이미 失傳되어 『經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경혈의 배열이 “혼란(亂)”스러웠다. 黃은 『靈樞』를 직접 참고하여 이를 重訂하였기 때문에 『銅人』을 선양시켰다고 하였다. 그러나 黃本『銅人』은 『銅人』을 선양시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銅人』에 대하여 오해를 증대시켰다. 『發揮』와 『銅人』을 대조해 보면 穴名、穴位、穴數는 같지만 경맥체계에 있어서 『銅人』은 向心으로 순행하는 「本輸」를 正經으로 삼았고, 『發揮』는 半向心으로 순행하는 「經脈」을 正經으로 삼았기 때문에 양자는 완전히 다르다. 王이 『銅人』을 저작할 때에 「經脈」의 원문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現本『銅人』에서는 「經脈」의 원문이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논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대부분의 침구가들은 『銅人』이 古本、珍本이고 중요한 경혈 전저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그 경혈체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으로 혈을 통합한 『經脈』의 현행 체례가 『甲乙·明堂』과 『銅人·明堂』을 계승하여 선양시켰다고 오인하게 되었고, 『聖濟』、『發揮』、『類成』、『銅人』 등의 경혈체례가 『甲乙·明堂』과 『銅人·明堂』 체례를 잘못 개찬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3) 『銅人』 경혈체례의 분석

『銅人』의 夏竦 序에서 “편작이 꺾나라 태자를 기사회생시키고, 화타가 앓은맹이를 고치고, 왕찬이 사기를 몰아내고, 추부가 鬼病을 치료한 것은 귀신같아서가 아니라 모두 이 법에 의거하였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나간 성인과는 점차 멀어지고 그 학문은 어렵고 오묘하여 경맥의 歌訣을 나열하고, 명당도를 그렸지만 글자가 분분하여 바뀌고 섞여 책을 베낄 때 오류가 많았다. 따라서 함부로 뜬을 뜨서 肝을 상하게 하고 침을 놓아서 胃氣를 잃게 하여 일반 백성들은 폐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용열한 의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잘못된 것을 받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이 아니면 누가 이러한 병폐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⁴⁰⁾라 하였다. 唐代 甄權이 『明堂』을 重修할 때에도 “上下倒錯 前後易處……可爲深誠”라 훈계하였다. 『明堂』을 重修할 때에도 역시 옛 경전이 분명치 않고 傳抄에 訛傳이 많고 “承誤不思”하는 등의 폐단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지금도 혈을 두고 경을 바꾸어 “계승(承)”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甄權、王維一을 쫓아 “이러한 잘못(茲患)”을 밝혀 愚者의 “思”를 드러내고자 한다.

『銅人』의 夏竦 서문에서 “천의 변화를 잘 알면 반드시 인체에서 징험되는 바가 있다. 天에는 12월이 있어 경락이 이에 응한다. 천의 운행 도수에 365일이 있고 사람의 기혈도 이에 응한다. 上下에 상응하는 법칙이 있고 左右로는 정조가 나타난다. 독맥과 임맥이 마주보고 腧穴에는 숫

40). 新鑄『銅人腧穴針灸圖經』序, 針灸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北京, 1997.

자가 있으며 혈맥에서 오묘함을 궁구하고 음양에서 변화를 점검해야 비로소 성인의 말씀을 모두 기록할 것을 명하고 金蘭의 室에 보관하였다. 雷公이 의학의 법칙을 묻고 황제가 명당에 앉아 이를 가르치고부터 후세에 이를 『明堂』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침구의 법과 왕과 관리들이 지킨 옛 말을 깊이 생각하여 인명이 걸려 있고 일상에 매우 급한데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백성을 구제할 수 있다. 殿中省 尙藥奉御인 王維一은 일찍이 禁方을 입수하여 숙달한 장인이 솜들을 가는 심정으로 전심으로 천자의 명을 받들어 온 정성을 기우려 偃、側部의 人形을 정하고 腧穴에 分寸을 바로잡고 고금의 경험을 참작하여 증보하고 날짜에 따른 避忌法을 고치고 여러 설을 모아 三篇을 편찬하였다. 前代에는 옛 경전에 대한 훈고가 매우 정밀하였는데 학자들이 받들어 지킴에 잘못이 많아 이를 깨달아 전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고, 문자에 따른 동인의 형체가 달라, 다시 銅人을 주조할 것을 명하여 본보기로 삼았다. 안으로는 장부를 나누고 溪谷에 旁注를 달고 정영수경합 오수혈이 모이는 孔穴에 따라 구멍을 뚫어 안으로 통하게 하고 그 옆에 標題를 세겨 이를 보는 사람이 확연하고 차서있게 하여 의문이 얼음 녹듯 사라지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에 미치지 않았고 천자께서 신에게 서문을 지를 것을 명하여 『新鑄銅人腧穴針灸圖經』이라 명명한다. 사방에 이를 반포하니 만대에 본보기로 삼게 하니라”고 하였다.

상술한 서문은 宋 仁宗이 “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늘에서 부여 받은 수명을 지키는(保我黎庶 介乎壽考)” 심정으로 王維一에게 하명하여 『明堂』을 重修케 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唐, 宋의 제왕들이 『明堂』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明堂孔穴』이 만들어진 후에 『甲乙』, 『千金』, 『外臺』 세 『明堂』 專篇의 유전을 통하여 후인들이 어느 것이 “正統”이고 어느 것이 “異說”인지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甲乙·明堂』, 『千金·明堂』에서는 일부 腧穴에 대한 歸經이 명확치 않아 후인들의 이해와 인식이 각기 달랐다. 『外臺·明堂』에서 처음으로 歸經시켰지만 논증이 명확하지 않고, 근거가 확실치 않아 여전히 후인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銅人』은 그 經穴體例를 보면 『明堂』이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甲乙·明堂』 이후 또 하나의 『明堂』 專著이다. 그러므로 『銅人明堂』이라 명명할 수 있으며, 또한 오늘날 『甲乙·明堂』의 본래 면목을 밝히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古本이다.

『銅人·明堂』과 『甲乙·明堂』의 12경은 모두 向心으로 순행하는 「本輸」를 正經으로 삼았다. 手太陰을 예로 들면 『銅人』에서는 『甲乙』의 “手太陰及臂” 9穴에 肺募、中府와 “手太陰脈氣所發”하는 雲門을 추가하여 11穴을 만들었다. 이는 후세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手太陰 11穴의 진정한 “본보기”가 되었다. 이 밖에 『銅人』에서는 14경의 單經體例 이외에 권5에는 부위별로 경을 나눈 『甲乙·明堂』의 체계가 남아 있다. 권1은 「本輸」에 따라 12개의 坐人, 立人圖를 그려 「本輸」가 十二經의 正經임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것이 『甲乙·明堂』이 유전된 것 중에서 정통이라 할 수 있다.

현행하는 『國際針灸穴名方案』의 361혈에서 『銅人』에 354혈이 있고 그 나머지 7혈도 『銅人』을 선례로 삼아 증보하였다. 오늘날 14경은 『外臺』를 기초로 하여 『銅人』에서 처음으로 수정하

었다. 『聖濟』에서 “調整”은 『銅人』 354혈의 穴名, 穴位를 사용하여 “上下倒錯 前後易處”한 것을 개작하였다. 『聖濟』의 창작이 아니고 『銅人』을 따른 것이다.

『銅人』의 354혈은 근대까지 가장 오랫동안 유전되었다. 『銅人』에서 4혈을 증가시키고 『外臺』의 1혈을 합하여 354혈이 되고부터 『聖濟』와 『發揮』가 『銅人』의 경맥순행 방향을 改變시켰지만 腧穴은 여전히 354혈이다. 이후 『資生』(1220년)에서 또한 5혈을 증보하여 귀경시켰지만 明代 『類經』 시기(1674년)에는 『銅人』의 354혈을 회복시키고 따로 中樞、急脈을 추가하여 356혈로 되었다. 이후 清代 『醫宗金鑑』(1742년)에서도 『銅人』 354혈을 위주로 『資生』의 風市 1혈과 『類經圖翼』에서 2혈을 추가하여 모두 357혈로 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경혈을 증보한 과정을 보면 『銅人』 354혈은 근대의 경혈체제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 유전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현대 경혈체제는 『銅人』이 “본보기”임을 의심할 나위가 없다.

4) 『甲乙·明堂』에 대한 『銅人明堂』의 공헌

『銅人』 권1에는 세 개의 立人圖가 있다. 그 중에 사지말단에서 시작하여 향심으로 순행하는 12경의 起止 穴名을 모두 注記하였는데 手太陰을 예로 들면 “起于少商穴 終于中府穴”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모두 향심으로 순행하는 『甲乙·明堂』의 脈氣를 처음으로 明文으로 제시하고 주해하였다.

『銅人』은 『外臺』를 기초로 14경의 경혈을 다시 새롭게 수정하였다. 경마다 「本輸」를 正經으로 삼은 경혈이 있을 뿐만 아니라 「經脈」의 원문도 있다. 手太陰의 少商을 예로 들면 『銅人』에서는 이것이 「本輸」 手太陰肺經에서 出하는 井穴이고, 「經脈」의 手太陰이 순행하는 終點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注文에서 “少商穴分也”라 하였다. 「經脈」 원문에는 脈氣가 “起于中焦……出大指端”만 있고, 生發하는 어떠한 腧穴도 없기 때문에 『銅人』의 手太陰은 「本輸」의 經文을 正經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經脈」의 원문도 신고 주석을 달았다. 따라서 『靈樞』 시대는 「本輸」와 「經脈」이 병존한 시대였음을 나타내었고, 아울러 『明堂』이 만들어지고부터 『銅人』에 이르기까지 1000년 이상 모두 동시에 유전되었으며 向心經穴인 「本輸」가 「經脈」의 五輸穴로 변천된 흔적도 없다.

銅人模型의 주조는 『明堂』 경혈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처음으로 만든 교육용 기자재이다. 여기에서는 『甲乙·明堂』의 “氣穴三百六十五以應一歲”를 규범으로 삼고 또한 4혈을 증보하였다. 즉 『外臺』를 계승하고 또한 靑靈、靈臺、腰陽關、厥陰俞 4혈을 증보, 귀경시켜 오늘날까지 계속 유전되었다.

元·竇漢卿이 저작한 「標幽賦」에서 “穴出雲門 至期門而最後”라는 말이 있는데, 인체의 腧穴은 하나 하나가 접속되어 “如環無端”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銅人』에서 기재된 것을 보면 12경의 腧穴은 모두 肢端에서 出하여 向心으로 순행하며, 하나 하나가 접속되어 “周而復始”한다는 의미는 없다. 그런데 『甲乙』、『千金』、『外臺』의 『明堂』에서는 구체적으로 注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각기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다. 『銅人』에서 腧穴의 起止順序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穴出雲門、至期門而最後”의 설이 『明堂』의 經旨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外臺』의 14경을 기초하여 『甲乙·明堂』의 14경 單經體例를 수정하였다.

1, 12경에서 취사선택 : 부위에 따라 經을 나눈 『甲乙·明堂』의 체례에 14경의 單經 경혈이 존재하고 있다. 『外臺』의 「十二身臟腑明堂」에서 처음으로 14경을 창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논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경혈의 귀경에도 타당성이 부족한 곳이 매우 많았으나 『銅人』에 이르러서는 이를 취사선택하였다. 手太陰肺經을 예를 들면 『外臺』는 『甲乙·手太陰及臂』 9혈을 계승하고 手太陰과 유관한 雲門、中府는 足太陰(脾人)에 소속시키고 肺俞는 背部의 足太陽에 귀속시켰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귀경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증이 없었다. 『銅人』에 이르러 手太陰經은 『甲乙·手太陰及臂』 9혈에 “肺之募也”인 中府穴과 “手太陰脈氣所發”인 雲門穴을 추가하여 모두 11혈로 하였고 또한 手太陰經이 “起于少商穴 終于中府穴”한다고 명확하게 注記하였다. 이로부터 11혈이 『聖濟』、『發揮』에서 “上下顛倒”되어 起止가 倒錯되었지만 그러나 11穴名、穴位、穴性は 『銅人』의 것으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2. 背俞、募穴의 같은 점과 다른 점 : 『銅人』과 『外臺』의 背俞는 「本輸」를 正經으로 삼아 足太陽에 모두 귀속시켰지만 『銅人』과 『外臺』에서 募穴의 귀경에는 차이가 있다. ① 귀경이 서로 같은 것: 心包、三焦、大腸、小腸、心、胃、腎、膀胱 8募穴는 오늘날까지 계속 유전되어 왔다(心包募는 後人이 추가한 것임). ② 귀경이 다른 것: 肺募 中府는 『外臺』에서는 足太陽에 있고, 『銅人』에서는 手太陰에 있다. 脾募 章門은 『外臺』에서는 足少陽에 있고 『銅人』에서는 足厥陰에 있다. 肝募 期門은 『外臺』에서는 足太陽에 있고 『銅人』에서는 足厥陰에 있다. 膽募 日月은 『外臺』에서는 足太陰에 있고 『銅人』에서는 足少陽에 있다. 지금은 모두 『銅人』을 따르고 있다. 『銅人』의 14경은 『外臺』를 기초로 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銅人明堂』은 『甲乙·明堂』에 대해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明堂』 14경 체례의 진정한 본보기가 되었다. 이는 『甲乙·明堂』과 『聖濟·經脈統論』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히는데 유력한 논거를 제공하며, 더욱이 근대에 경으로 經을 통합한 「經脈」의 체례가 『明堂』의 정통인지 아닌지를 새롭게 고증하는데 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 동시에 『銅人』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黃帝明堂經穴은 唐太宗을 계승하여 宋代仁宗 이후부터 이를 國寶로 인식하고 “병을 논하여 나라에 미치게 하고 병의 증상을 살펴 정사를 알 수 있다……잘못된 생각을 고쳐 백성을 영원히 구제하려”는 관심을 가지고 임금의 뜻에 따라 重修하였다. 따라서 王維一의 이론을 근거로 『明堂』의 진면목에 다시 접근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聖濟總錄』의 경혈체례

宋徽宗이 政和7년(1117년)에 『聖濟總錄』(이하 『聖濟』라 간칭함)을 완성시키고 친히 序文에서 “국사를 돌보는 사이에 42章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內經』의 요점을 발명하여 『聖濟經』이라 한다.……권수는 모두 200이고 方은 모두 2만개이니……이를 『政和聖濟總錄』이라 명명한다”고 하였다. 고대 醫籍에서 皇帝가 친히 서문을 지은 것은 이를 제외하고는 없어 그 권위가 일반적 인 것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침구경혈 부분은 雜篇에 속하게 하여 침구의 專著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술적인 가치 또한 『甲乙』, 『銅人』에 비할 바가 못된다. 이것이 황실의 官書이긴 하지만 다시 고찰되어야 한다.

1) 『聖濟總錄』의 경혈체례

『聖濟』가 성서되자 宋 徽宗은 聖旨로 전국의 學宮에 배포하였다. 靖康(1126년) 사변 후 金·大定27년(1188년)에 간행되었고 元·大德 4년(1300년)에 再刊되었는데 오늘날의 본은 大德本을 근거하여 重印된 것이다. 卷191~194가 침구경혈 부분이고 「經脈通論」篇이 있으며 경혈체례는 다음과 같다.

본편은 “經脈者 其氣始從中焦注于手太陰”에서 시작하여 “厥陰復會于中焦 注手太陰 此營氣之序也”로 맺는다. 그 다음 五十度周身 등을 설명하였는데 全篇을 통하여 「九鍼十二原」, 「本輸」, 「邪客」, 「經別」, 「根結」篇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甲乙』에서 『銅人』에 이르기까지 경혈체례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마지막에 단지 “지금 맥에 따라 그 경혈을 기재한다”는 말만 있는데 이는 『甲乙』에서 『銅人』에 이르는 1000년 이상 흘러온 정통체례를 새로운 체례로 개정한 것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에 실린 14경 354혈에 따른 經名、穴名、穴位、穴數、穴性은 『銅人』과 기본적으로 같다. 그러나 『銅人』을 참고하였다는 말은 없다.

2. 周而復始하는 「經脈」의 12맥을 正經으로 삼았다. 出、入、離、合하며 向心성으로 순행하는 「本輸」의 12正經을 폐기하고, 원래 「本輸」에 속한 五輸穴은 없애버리고 五輸穴을 「經脈」에 귀속시켰다.

3. 『銅人』 腧穴의 起止 순서를 바꾸었다. 手太陰을 예로 들면 『銅人』은 “起于少商, 終于中府”하는 向心성 배열인데 『聖濟』에서는 “起于中府, 終于少商”하는 원심성 배열로 고쳤다.

4. 『銅人』에서 腧穴이 生發하는 것을 고쳤다. 『銅人』은 「本輸」를 正經으로 삼고, 五輸穴、郄穴、絡穴、別穴、蹻脈、維脈 등의 穴과 募穴、背俞 등 365혈 모두가 인체의 장부에서 原氣가 生發한다. 이것과 「經脈」의 營氣와는 상호 의존관계는 있지만 所生、所發하는 관계는 없다. 『聖濟』에서는 「經脈」을 正經으로 삼아 365혈로 고쳤는데 이는 모두 「經脈」의 營氣가 生發한다고 보았다. 즉 부위별로 나누어 腧穴이 所注하는 『甲乙·明堂』의 “脈氣所發”에 대하여 「經脈」의 營氣가 發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후인이 “穴出雲門 至期門而最後”한다는 오해를 낳게 하였다.

5. 「本輸」、 「經脈」이 병존하는 『銅人』의 체례를 바꾸었다. 『銅人』은 「本輸」를 위주로 腧穴을 배열하였고, 동시에 「經脈」 원문을 附錄으로 注記하였다. 『聖濟』에서는 「經脈」、 「營氣」를 위주하여 腧穴을 배열하였다. 「本輸」、 「邪客」、 「背俞」 등 向心성 경맥의 경문을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에 후인들에게 「經脈」만이 正經이라고 오도하였고 「本輸」는 「經脈」의 五輸穴로 인식하게 하였다.

1983년 『中國針灸』 第二期에서 발표된 魏稼의 “『聖濟總錄』의 鍼灸學的 成就”에서 “『聖濟總錄』이 腧穴의 배열순서를 조정한 것은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經穴 排列의) 혼란한 국면을 결속시켰다. 경혈이론을 진일보시켜 條理化、系統化、規範化하는데 기초를

세워 후세 경혈 배열에 모범이 되었다. 元·忽太必烈、滑伯仁에서 오늘날의 針灸教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이를 준칙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魏氏의 이 말은 『聖濟』에서 출발하여 그 이후를 고증한 것으로 이는 元代『十四經發揮』、明代『針灸大成』 및 근대 교재를 기초로 이론을 전개하였다. 『聖濟』 이전의 체례에 대해서는 오랜 시기에 걸쳐 모두 “混亂”(『甲乙』、『千金』、『銅人』의 체례를 포함하여)한 것으로 보았다. 『聖濟』에서 경혈의 체례를 바꾼 것은 일종의 착오이다. 이는 경으로 혈을 통합한 「經脈」 체례에 따른 것이다. 즉 『銅人』、『外臺』、『千金』、『甲乙』 등의 明堂과 『靈樞』、『素問』、『難經』 등을 고찰해 보면 『聖濟』 체례는 『甲乙·明堂』 체례가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穴은 그대로 두고 經이 바꾼 잘못을 범했는데 이는 『內經』、『難經』、『甲乙』 등의 경문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2) 『聖濟總錄』에서 經의 체례를 바꾸었다

『聖濟』는 『甲乙』에서 『銅人』에 이르기까지의 354혈에 대한 穴名、穴位、穴성과 모두 같다. 실제로는 『甲乙』에서 『銅人』까지의 穴이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혈을 그대로 실을 수 있었을 것이다. 『聖濟』에서는 향심성 경맥인 「本輸」의 배열에 따르지 않고 「經脈」의 12경에 따라 배열 순서를 고쳤기 때문에 經을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착오에 대하여 『甲乙·明堂』의 經文과 이것이 흘러온 실황을 기준으로 삼아 『聖濟』 체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聖濟』에서는 『靈樞』 및 『甲乙』 卷三의 『明堂孔穴』 경문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 『聖濟』의 목적이 “發明『內經』之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內經』、『甲乙』을 부정하고 새로운 經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發明”한 뒤 『內經』、『甲乙』 원문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고대 經典을 계승、발양시킨다는 것은 경전의 뜻을 계승하여 변하지 않는 원칙 아래 그 원형을 다시 잘 고쳐 완전무결하게 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면 『甲乙·明堂』 이후에 『千金』、『外臺』、『銅人』 등의 本은 모두 그 원형을 기초로 증보시켜 편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계승、발양의 본보기이다. 그러나 『聖濟』의 체례는 『銅人』의 체례가 원형이었고 믿을 만한 새로운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前者보다 뛰어난 효용도 없다. 더욱이 변혁시킬 만한 논증과 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년 이상 흘러온 『明堂孔穴』의 정통 체례를 마음대로 고쳐버렸다. 이는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승、발양시켰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3) 『聖濟總錄』 체례의 오류

『聖濟』 체례가 오늘날까지 전해 온지가 800여년 되어 唐·王冰이 말한 바와 같이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 전해 내려오다가 폐해를 입었다(歲月既淹 襲以成弊)”. 오늘날 학자들 중에서 『聖濟總錄』의 경맥체례를 후세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만일 “順文敷衍”, “以訛傳訛”하였다면 잘못을 범한 원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聖濟』의 체례가 잘못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明堂』이 전해진 상황

1. 『千金』의 근거 : 『千金翼方』에서 甄權은 『甲乙』을 근거로 秦承祖의 明堂圖를 교정하였는데 경혈이 “上下가 섞이고 앞뒤가 바뀌어(上下倒錯 前後易處)” 『甲乙』 본경과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인용할 때에는 “매우 조심(深誠)”하라고 하였다. 즉 『甲乙』 체례가 표준이고 『甲乙』 本經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보았다. 甄權이 『明堂』(『千金』에 현존하는 것)을 편찬할 때 나이가 이미 100세였고 그때는 『甲乙』이 저작된지 200여년 정도 지났으며 또한 『明堂』 專篇에 속했다. 그러나 『聖濟·經脈統論』은 全書 200권 중에서 제191~194권에 속하는 雜篇이고 『甲乙』이 저작된지 이미 1000여년이 흘렀기 때문에 『千金』에서 언급된 것이 바로 올바른 도리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聖濟』에 기재된 것이 『千金』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착오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外臺』의 근거 : 『外臺』에서는 『甲乙』, 『明堂』을 “秘寶”、“正理”라 하였으며 『甲乙』과 부합하지 않는 다른 체례는 “異說”이라 하였다. “異說”은 착오와는 다르지만 착오도 함의하고 있다. 오늘날 『聖濟』 체례는 『甲乙』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므로 『外臺』의 입장에서 이는 착오 또는 “異說”임이 틀림없다.

3. 『銅人』의 근거 : 『銅人』에서 『明堂』 경혈은 “去聖寢遠……家亥多譌……庸醫承誤而不思”라 하였다. 즉 『銅人』 이전의 『明堂』 경혈에는 착오가 매우 많아 庸醫들이 이를 잘 살피지 않아 誤文、錯文을 계승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오늘날 『聖濟』의 체례를 살펴보면 『千金』에서警戒한 잘못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外臺』의 설도 위배하여 『銅人』에서 말한 “承誤不思”한 폐단이 있다. 그러므로 『統論』의 체계는 잘못된 것이다.

(2) 經文에 따른 견해

1. 「九鍼十二原」, 「本輸」의 근거 : 상술한 경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經脈十二, 絡脈十五” 등은 “十二原出于四關”과 “所出”、“所入”에 따른 井、榮、輸、經、合으로 되어 있다. 이는 『難經·八難』과 「六十六難」에서 말한 “臍下腎間動氣” 즉 原氣가 생발하는 곳이지 「經脈」의 營氣가 생발하는 곳은 아니다. 『聖濟』에서 「營氣」, 「經脈」의 이론으로 血을 경으로 통합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경문에 대한 오해였다.

2. 「營氣」의 근거 : 「營氣」篇에 督脈、任脈이 있는데 원문에서는 이것이 肝經에서 分枝하여 “上額循顛下項中 循脊入胝 是督脈也; 絡陰器 上過毛際 入臍中 上循腹裏 入缺盆 下注肺中 復出太陰”한다고 하였다. 『聖濟』에서 「營氣」 원문을 베꼈기 때문에 이치대로라면 督任脈의 走向도 이 經文을 준중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술된 任督脈의 순행은 「營氣」의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難經』의 설도 아니다. 素膠에서 起하여 다시 上下로 분리되어 長強에서 끝나는 『銅人』을 베낀 것이다. 이러한 배열법은 「營氣」의 경문에 따르더라도 틀린 것이다.

3. 「經脈」의 근거 : 『聖濟』에서 「經脈」에 따라 경혈의 起止와 生發關係를 應對시켰기 때문에 조리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聖濟』 체례와 「經脈」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합되지 않는 곳이 많다. 세 가지 예를 간략하게 들어 보기로 한다. (1) 手太陰의 經文에 “起于中焦”라 하였고, 『聖濟』에서는 “起于中府”라 하였다. 中焦는 胃中脘에 있는데 왜 中脘에서 起하지 않는가? 中府는 乳上 第三肋間에 있는데 手太陰이 “循肺系(喉嚨)橫出腋下”할 때 왜 中府로 “橫出”하고 雲門으로는 “橫出”하지 않는가? 元代 『標幽賦』에서 “穴出雲門 至期門而最後”라 한 것은 喉嚨에서 “橫出”하는 것으로 먼저 中府에서 “橫”으로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 가

능성이 있다. 中府에서 起하거나 雲門에서 起한다는 것은 “橫出”하는 부위의 高低가 합당한지 아닌지의 문제이다. “起于中焦”는 왜 中腕에서 起할 수 없고 中府에서 起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橫出腋下”에서 “出”字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起于中焦”는 脈氣가 內行하여 腋穴로 發“出”하지 못하기 때문에 中腕에서 起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의문스럽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본문의 고증을 통하여 『甲乙·明堂』에서 手太陰의 함의를 비로소 알 수 있는데 “橫出腋下”의 “出”字는 “起于中府”나 “起于雲門”도 아니고 “起于中焦”나 “起于中腕”에 따른 것도 아니다. 『聖濟』에서 “起于中府 終于少商”이라 한 것은 실제로는 『銅人』에서 “起于少商 終于中府”가 전도된 것으로 그 밖의 것은 고증할 수 없다. 그러므로 『聖濟』의 手太陰과 「經脈」의 經旨가 부합하지 않는다. (2) 足陽明의 起穴에 대하여 경문에서는 “起于鼻(之)交頰中”이라 하였고 『聖濟』에서는 頭維에서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경문과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聖濟』에서 “起于頭維”라 한 유래를 추구하면 『銅人』의 足陽明에서 “起于厲兌 終于頭維”라 하였는데 『銅人』의 원문을 『聖濟』에서 전도시켜 “起于頭維 終于厲兌”라 한 것으로 「經脈」의 원문을 고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足陽明의 終穴은 “下足跗 入中指內間; 其支者……下入中指外間”한다. 『聖濟』에서는 『銅人』, 『本輸』의 足陽明經을 「經脈」의 足陽明으로 고친 것이다. 즉 “起于厲兌”하는 『銅人』의 穴位를 “中指內間”이나 “外間”으로 고쳐야 「經脈」의 경문에 비로소 부합한다. 그러나 『聖濟』에서는 厲兌로 고쳐 終穴로 삼았으나 그 위치는 여전히 『甲乙』 “足大指次指之端”에 있다. “大指次指”와 “中趾”의 함의는 다르며 “中指內, 外間”은 中趾를 벗어날 수 없으며 趾의 內間, 外間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변은 「經脈」의 원문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변혁된 『聖濟』의 경혈체계가 오늘날까지 유전되고부터 『甲乙·明堂』의 본래 면목은 잃게 되었다.

Ⅲ 結 論

『黃帝明堂經』이 성서된 이후부터 明代 『針灸大成』에 이르기까지 針灸醫學史의 인 측면에서 經穴의 配列體系가 어떻게 변천되었는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찍이 佚失된 『黃帝明堂經』은 대체적으로 西漢末과 東漢 延平年(기원후 106년) 사이에 성서되었으며, 현존하는 대표적인 『黃帝明堂經』 傳本으로는 三國時代 皇甫謐이 저작한 『黃帝三部針灸甲乙經·卷三』에 보존되어 전해온 『明堂孔穴針灸治要』가 있고, 隋唐 시기에 楊上善이 『黃帝明堂經』의 三卷本을 注釋하여 十三卷으로 擴編하고 書名을 『黃帝內經明堂類成』으로 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2. 『甲乙·明堂』의 腋穴排列은 四肢部는 穴을 12經으로 나누고 下에서 上으로 배열하였으며 頭面軀幹 부위의 穴을 分行하였다. 楊上善의 『類成』에서는 腋穴을 모두 經에 따라 排列하였다. 이 두 문헌에서 나타난 腋穴排列의 차이가 후대 經穴體例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3. 『千金要方』에는 가장 오래된 「明堂三人圖」의 경문이 남아 있고, 十二經 經名의 標題를 처음으로 改稱하였으며 『靈樞·本輸』를 正經으로 삼은 『甲乙』의 체계를 따랐다. 『千金翼方·取孔

穴法篇』에서는 『甲乙·明堂』의 經穴排列 차서를 12經의 表裏 순서에 따라 개정하여 排列하고, 「本輸」의 五輸穴 앞에 募穴, 뒤에 俞穴을 추가하여 하나의 經으로 삼았으며, 모두 向心으로 순행하는 12正經을 만들었다. 그리고 『明堂』 경혈이 唐代에 착오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4. 『外臺秘要』에서는 『明堂』의 異說을 경계하였고, 十二經에 따라 十二身圖를 그려 경혈을 歸經、增補시켰으며, 腧穴排列은 「本輸」、『甲乙』、『千金』의 체례를 계승하였다.

5. 經穴模型的 구조에 따른 『銅人腧穴針灸圖經』은 부위에 따라 經을 나누어 穴을 圖記한 『甲乙·明堂』의 순서를 계승하고, 『外臺』에 따른 十四經을 완성시켰으며, 十二經의 循行起止를 명확하게 나타내었고, 『銅人』의 354穴은 근대까지 가장 오랫동안 유전되어 十四經 體例의 典範이 되었다.

6. 『聖濟總錄』의 침구학 부분에서는 14경 354혈에 따른 經名、穴名、穴位、穴數、穴性은 『銅人』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銅人』 腧穴의 起止 방향을 바꾸었다. 『聖濟』 체례는 周而復始하는 「經脈」의 十二脈을 正經으로 삼아 穴은 그대로 두고 經의 유주를 바꾼 오류를 범했는데 이는 『內經』、『難經』、『甲乙』 등의 경문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黃帝明堂經』이 1500여년 동안 流傳되어 오면서 그 原貌가 많이 훼손되고, 경혈 체계에 대한 오류도 많았다. 침구학계에서는 『靈樞·經脈』을 기초한 經脈體系를 교과서적으로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통적인 『黃帝明堂經』의 복원에 대한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經絡現象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통하여 經絡生理、病理를 해석하고 아울러 針法을 개발하여 임상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針灸甲乙經校釋』 上冊: 山東中醫學院 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79. p.426.
2.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人民衛生出版社 影印, 1982.
3. 孫思邈: 『千金翼方』, 卷26, 取孔穴法篇, 人民衛生出版社版. p.239.
4. 王焘: 『外臺秘要』 明堂序, 人民衛生出版社, 1955년 影印
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影印本 (光緒23年, 通隱堂刊), 中國中醫藥出版社影印本, 1994.
6. 楊上善: 『黃帝內經明堂』(仁和寺本), 東洋醫學善本叢書 第三冊 影印本, 東洋醫學研究會, 오리온출판사, 1981..
7. 陳延之: 小品方, 高文鑄 輯校注釋,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5.
8. 丹波康賴: 『醫心方』,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年, 卷二 38쪽.
9. 趙佶: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1982.
10. 王維一: 新鑄『銅人腧穴針灸圖經』序, 針灸名著集成, 華夏出版社, 北京, 1997.
11. 張介賓: 『類經』, 文淵閣四庫全書本.

12. 高武:『針灸聚英』,上海科學技術出版社,1978, p5.
- 13).『舊唐書·經籍志』,
- 14.『新唐書·藝文志』,
- 15.『蔡中郎集』“明堂月令論”,四部備要本,卷十
16. 周楣聲:『針灸穴名釋義』,安徽中醫學院教務處 鉛印,1983.
17. 李今庸:中醫古代病症名詞考,『湖北中醫雜誌』,(2) 1984: 1
18. 黃龍祥 主編:針灸名著集成,華夏出版社,北京,1997.
19. 馬繼興:中醫文獻學,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0.
20. 馬繼興:『十二種重點中醫古籍的現存版本及其源流』,中醫研究院醫史文獻,1984.
21. 筱原孝市:甲乙經總論,『東洋醫學善本叢書』第八冊,日本,東洋醫學研究會,1981.
- 22). 吳剛:關於十四經穴配列的討論,(全國第二屆鍼灸學術會議論文),1981年
23. 李茂如: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滙考,人民衛生出版社,1994.
24. 李鼎:『針灸甲乙經腧穴重輯』本批評,上海針灸雜誌,1983, 2期.
25. 王雪苔:『針灸甲乙經腧穴重輯』序,山東科學技術出版社,1982..
- 26.『中醫大辭典·醫史分冊』:『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 編,人民衛生出版社,1981, p221.
27. 李志道:“「足臂十一脈灸經」學術觀點在『內經』中的體現”,『中醫雜誌』,1982, 2期.
28. 魏稼:『聖濟總錄』的鍼灸學成就,中國針灸,1983年 第2期.
29. 山東中醫學院 校釋:『針灸甲乙經校釋』,人民衛生出版社,1979.